주체90(2001)년

6.15주간

6.15Weekly

제21호 (11월 9일~11월 15일)



특집 - 이남 당국의 ≪비상경계≫, 6.15공동선언 발목 잡다

노작 - 북남합의서의 채택은 우리의 커다란 승리이다

진보정당과 2002년 양대선거 토론회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 60일간 1인 릴레이 단식농성

민주화는 이남민중의 긴절한 투쟁과제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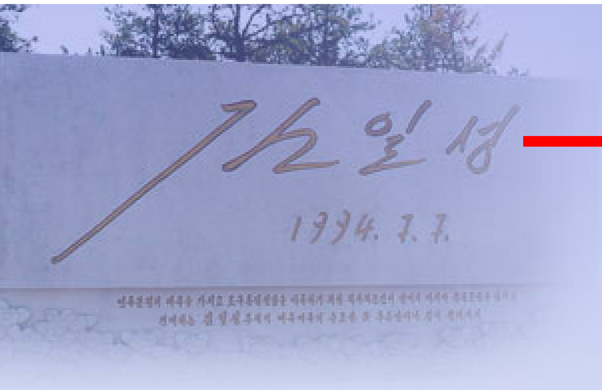
6.15WEEKLY

제21호 (11.9~11.15)



북남합의서의 채택은 우리의 커다란 승리이다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들과 한 담화
주체80(1991)년 12월 13일



동무들이 남조선에 나가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무들이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북남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우리의 커다란 승리입니다.

동무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남조선당국자들이 끝내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성실한 노력을 다시한번 크게 과시하였습니다.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게 됩니다. 합의서가 채택된 것만큼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을 명분도 없게되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할 구실도 없게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둘이유도 없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위한 진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통일이냐 분열이냐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애국과 매국과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번에 북남합의서를 받아물면서 북남최고위급회담 개최문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형편에서는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미 여러번 말하였지만 북과 남의 두 최고위당국자가 마주앉아 차나 마시면서 연설이나 하고 헤어져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나라의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연방제통일방안을 내놓았고 남측에도 그에 상응한 안을 내놓아라, 그래야 서로 마주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아직까지 상응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저들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우리의 연방제통일방안과 비슷하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방제통일방안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하자는 것인데 남조선당국자들의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 실현될 수 없는 제도통일론이며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민족분열의 고정화입니다.

오늘에 와서 연공을 반대하고 민족의 대단결에 기초한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합류해나서지 않는 사람은 사대매국노들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김구도 최덕신도 다 우리를 찾아와서 손을 잡았고 김규식을 비롯하여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찾아와 연공에로 돌아섰습니다. 김구는 ≪상해임시정부≫에 있으면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반공분자였지만 그래도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적 양심은 다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는 우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김구는 북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매국역적이 될 수야 없지 않는가고 하면서 김구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지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날 반공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라도 전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서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이 없습니다.

동무들은 역사적인 북남합의서를 채택한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그 실행을 위한 투쟁을 더 힘있게 벌여나가야 하겠습니다.





8. 라자구 등판에서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6장 시련의 해



세기와 더불어

…

량강구를 떠난 반일인민유격대의 40명 대오는 돈화와 액목을 거쳐 산발을 타고 남호두방면으로 북상하였다. 우리 부대가 나의 ≪머슴군≫시절이 흘러간 그 유명한 푸르허마을에 들려 정치공작을 한것도 이때이며 돈화현 할 바령부근에서 돈도선(돈화-도문)철도부설공사에 동원된 일본군수송대와 격전을 벌인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 전투가 있은 후 나는 돈화현 두도량자에서 고재봉도 만났다.

적들의 폭압이 심한 사도황구를 떠나 두도량자로 활동무대를 옮긴 고재봉은 지하조직이 운영하는 농민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두도량자에서 돈화현성까지는 30리밖에 안되었다.

나는 그때 두도량자에서 고재봉의 어머니도 만나보았다.

우리는 일본군소송대를 들이치고 로획한 밀가루를 집집마다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인민들과 함께 먹었다. 그 전투에서 로획한 광목천은 농민학원에 주어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도록 하였다.

두도량자를 떠난 우리 부대는 다시 북상하여 관지 부근과 남호두지방에서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한 다음 왕청지구에 들어가 당, 공청 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료해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얼굴을 익히었다. 이것은 장차 왕청에 활동거점을 잡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왕청에 가서도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늦추지 않았다. 나는 리광의 별동대가 총 몇자루를 해결하려고 잘못 건드려놓은 관보전부대를 만나려고 리수구에 찾아갔다. 그런데 관보전은 벌써 항일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관영장을 만나 왕청동무들을 대신하여 그에게 사죄도 하고 공동투쟁을 위한 방도도 의논하면서 지난날 조, 중 무장부대들사이에 일시적으로 조성되었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려고 하였다.

관보전은 달아났지만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만나보려고 련락을 보냈더니 100명쯤되는 반일부대병사들이 돈화현성에서 일본군대를 족친 **김일성**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보자고 하면서 우리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앞에서 왕청별동대가 무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영장부대의 병사들에게 손을 댄 것이 비우호적인 처서였음을 인정하고 조중인민이 공동투쟁과 반일부대의 사명과 관련된 허심탄회한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에 대한 반일부대사람들의 반향이 좋았다. 코산이라는 지휘관은 그 연설을 듣고나서 자기도 관보전처럼 항일을 포기할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옳은 길을 걷겠다고 하였다. 그 결의대로 그는 반일전선에서 잘 싸웠다. 왕청에서 큰 두통거리로 되었던 반일부대와의 화해는 이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던 좌경적편향을 없애고 그들을 항일련합전선에 더 많이 인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자구에서 반일병사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때 동녕현성에 집결된 구국군부대들은 쏘련을 경유하여 중국관내에로 퇴각할 차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국경밖으로 달아나려고 서두르는 구국군의 도주를 막고 그들을 반일전선에 튼튼히 묶어놓으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격투쟁앞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반일부대들을 격파하기 위하여 사방에 분산되였던 적들의 ≪토벌≫력량은 몇백명밖에 되지않은 우리의 무장력을 단숨에 질식시켜버릴수 있었다. 적아의 력량관계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해질수 있었다.

그 당시 일본군은 만주의 군소도시들을 다 점령할 계획밑에 도처에서 반일무장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소재지까지 다 점령하려고 획책하였다.

회의에는 나와 리광, 진한장, 왕윤성, 호진민, 주보중을 비롯하여 30-40명이 참가하였는데 나와 리광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진한장, 왕윤성, 주보중은 중국측을 대표하였다.

회의의 기본안건은 구국군의 도주를 막고 반일련합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문제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왕청유격대의 과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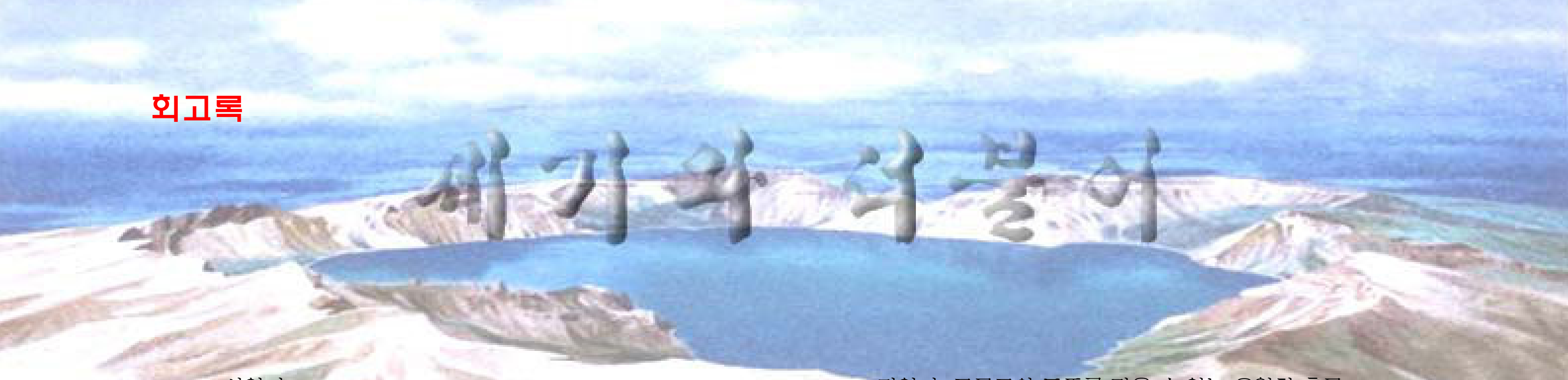
과오의 시초로 된 것은 왕청부대에서 발생되었던 ≪김명산사건≫이었다. 김명산은 원래 장학량군시절이 ≪보위단≫에 있다가 9.18사변후 6명의 중국인부하를 거느리고 왕청유격대로 반변해온 조선사람이었다. 그는 명포수출신으로서 싸움을 잘하였다. 왕청부대동무들은 그가 반변해오자 금덩이가 굴러들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런데 반변해온 중국인대원 6명중 한명이 적통치구역에 2정찰을 나갔다가 대감자음식점에 들려 값도 치르지 않고 호떡 한그릇을 먹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에게는 음식값을 물어줄 돈이 없었다. 그는 부대에 돌아와 자기가 돈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고 온 사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보고 하였다.

현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좌경분자들은 유격대의 명예를 훼손시킨 해독분자라는 감투를 씌워 그 중국인대원을 총살하였다. 현당군사부의 조치로 왕청에서 처형당한 중국인대원들의 수는 무려 10여명에 달하였다.

김명산과 함께 반변해들어왔던 나머지 중국인대원들은 이러한 공포분위기에 놀라 부대를 탈출하여 마촌구근방에 주둔하고 있는 관보전부대에 찾아갔다. 유격대가 중국사람들을 함부로 총살한다는 그들의 선전을 듣고 위험을 느낀 관보전은 유격대의 주둔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골짜기에 부대를 이동시켜가지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할 기회를 노리었다.

10월 혁명기념일이 되자 왕청사람들은 날창과 몽둥이와 같은 원시적인 무기들을 휴대하고 행사장에 몰려들었다. 그들이 이런 유치한 무기들을 들고 기념식장에 나타난 것은 행사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세기와 더불어

서였다.

기념식장에 사람들이 집결하는 것을 자기네 부대에 대한 공격준비라고 잘못 판단한 관보전은 분개하여 자기의 수하에서 참모장의 직책을 가지고 구국군대원들에 대한 교양과 통일전선운동을 추진시키고 있던 유격대공작원 김은식과 홍해일, 원홍권 등 여러명의 조선사람들을 총살하였다.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와도 같은 역습이었다.

그후 투쟁을 포기한 관보전의 부대는 삼삼오오 떼를 지어 적의 통치구역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왕청부대는 관부대의 투항을 막는다고 하면서 몇차례에 걸쳐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무장을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고 하여 관부대의 투항병 몇 명을 죽이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관보전부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복수전을 시작하였다. 조선청년들 중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붙들어다가 총살하였다. 조직된지 몇 달되지 않은 왕청유격대는 반일부대에 포위되어 많은 희생을 내였다.

반일부대와의 관계에서 발로된 이와같은 미숙성과 무분별성은 조중관계를 급격히 약화시키고 조선혁명앞에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을 파놓았다.

회의 참가자들은 반일부대와의 관계를 망쳐놓은 다음에도 그 과오의 엄중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무슨 복수를 운운하는 왕청유격대의 지휘관들을 가차없이 비판하였으며 장시간에 걸치는 론의를 거쳐 구국군과의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행동조례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공통적인 리해에 도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회의에서 론의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구국군과의 발목을 만주땅에 잡아매두고 그들로 하여금 항일을 계속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구국군은 그 당시 수만명에 달하는 력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에게 일본군을 당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일본사람들 자신이 류포시킨 ≪천하무적≫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말 이 세상에는 일본을 당해낼 힘이 없고 일본군대에 대적할만한 군대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투쟁을 거의다 포기하였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란 어떻게 하면 일본군에게 죽거나 포로되지 않고 아직 전쟁의 불찌가 튀지 않고 있는 산해관너머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타산뿐이었다.

일본군은 간도지방에서 왕덕림부대에 함께 라자구를 사수하자고 결의하였다. 라자구를 사수하자면 왕덕림을 설복하여 그가 쏘련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해야 하였다. 구국군의 속셈은 쏘련을 거쳐서 중국본토로 가자는 것이었다. 반일부대 두령들과 병사들 속에서 쏘만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었다 수만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던 리두와 마점산도 쏘련을 경유하여 중국본토로 달아나버리었다. 구국군의 도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일본군과 전투를 한 번 본때있게 하여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적황군≫에 대한 환상과 공포심을 완전히 숙청해버리는 것이었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가운데서 왕덕림을 설복할 수 있는 적임자는 주보중이었다. 주보중은 국제공산당의위임을 받고 왕덕림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나는 주보중에게 왕덕림을 설복하여 그가 어떤 일이 있던지 퇴각을 중단하고 유격대와의 련합전선에 나서도록 해보라고 권고하였다.

≪우리는 동만에 거주하는 조선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유격전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소. 문제는 구국군인데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왕덕림을 설복해서 그들이 만주땅에 버티고 서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항전을 계속하도록 해야 하오. 그 사람들이 쏘련으로 가겠다는건 씨비리에 가서 사회주의혁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쏘련땅을 거쳐 관내로 도망치려는 것이요.≫

주보중은 그말을 듣자 해결하기 힘든 숙제라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들이 아직 속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국군이라는건 사실 겁쟁이들의 집단이요. 일본놈들의 비행기가 우르릉하고 삐라 한 장만 뿌려도 부들부들 떨면서 꽁무니를 빼는 시라소니무리란 말이요. 그러니 도저히 전투를 해볼 수 없구만, 그렇게 비겁한 무리들을 나는 난생처음 보았소. 구국군과 련합하여 일본군을 친다는 건 망상이나 다름없소.≫

주보중과 같이 련합불가능설을 제창하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 의견대립이 생기고 불가능론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었다. 그때는 다 제마끔 영웅이고 천재고 지도자였다.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지에 나가서 지방공작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림시적인 조직인 것만큼 누구라고 할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러나 회의는 내가 의장이 되어 집행하였고 회의는 회의대로 하였다. 내가 의장으로 회의를 집행한 것은 직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구국군들과의 사업에서는 **김일성**이 로장이라고 하면서 중국동무들이 나를 추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라자구회의다.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로서는 마지막회의였다. 이 회의를 마감으로 병사공작위원회는 해체되었다.

라자구회의 결정에 따라 나와 리광, 진한장과 주보중, 호진민은 왕덕림부대, 오의성부대, 채세영부대와의 사업을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오의성과 채세영은 다 왕덕림의 부하들이었다.

얼마후 오의성부대에 간 진한장한테서 통보가 왔다. 오의성이 라자구회의의 방침에 응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락관적인소식이었다.

…

세계의 정치원로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지난 7월부터 8월사이에 **김정일**영수께서 러시아연방을 공식방문하시었다. 온 세계가 특기할 세계적 사변으로 간주하고 있는 **김정일**영수의 러시아방문은 20여일간의 5만여리에 걸친 대장정이였다. 그분의 정력과 담력에 놀랐거니와 더욱이 놀라운 건 영수께서 오랜 기간 자리를 뜨셨지만 북에서는 조그마한 혼란도 없었으며 오히려 민중은 장군의 안녕과 건강을 축원하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평소보다 더 큰 혁신을 이룩했다는 것이다. 이북의 정치적 안정을 보여주는 일심단결의 참모습을 재삼 실감케 했다.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정치가들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하지만 **김정일**영수와 같은 그런 열광적인 환영, 극진한 환대는 받지 못했다. 세인들은 세계정치의 거장으로써의 **김정일**영수의 절세의 위인상을 다시한번 절감했다.

김정일영수의 러시아방문은 세계에서 제왕노릇을 하려는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고 한반도등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 특기할 세계사적 사변이였다. 제2의 **김정일**충격, **김정일**열풍으로 지구촌을 또한번 격동시킨 **김정일**영수의 러시아연방 공식방문은 이북이 세계에 점하고 있는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각인시켜주었다.

지구촌은 거대한 위인충격으로 들끓었다. **김정일**영수의 러시아방문소식을 세계 150여개 나라 TV 방송이 연일 건건 특별방영했고 매일 50여억명의 인구가 영수의 러시아방문소식을 시청했다. 이것은 **김정일**영수의 러시아방문이 세계정치계에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하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정치사에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김정일**충격과 같이 순간에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그런 위인충격은 없다.

잠깐 지난해로 돌아가보자. 세계를 경탄시킨 **김정일**영수의 비공식 중국방문, 러시아대통령 푸틴의 평양방문, 전 미국무장관 올브라이트의 평양방문은 세계정치에 점하고 있는 이북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뚜렷이 부각시켜 주었다. **김정일**영수의 비공식 중국방문은 세계를 충격속에 들끓게 했다. 중국은 의전관례를 넘어 **김정일**영수를 뜨겁게 맞이했다. 장쩌민총서기를 위시한 당, 정, 군의 최고요인들이 그분을 열광적으로 환영, 극진히 환대하고 높이 존경했다.

세계는 **김정일**영수께서 중국 한나라를 방문하셨

지만 세계정치를 다 관장하셨다고 입을 모았었다. 지난해 러시아 푸틴대통령이나 지난 9월 3일 중국의 장쩌민주석의 평양방문은 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이다. 다시말해 평양을 축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평양의 정치에 발걸음을 맞추고 평양의 목소리에 파장을 맞추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에서 국가원수가 평양을 방문한 예는 일찍이 없다. 구 소련시기에도 없었던 것이다. ≪역대 러시아지도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커다란 정치적 오류≫였다고 한 푸틴대통령의 말도 의미심장하지만 러시아의 한 정객이 러시아신문 ≪패트리어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은 깊이 새겨 들을 말이다.

≪푸틴의 평양방문은 전 세계의 모든 정치가들이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위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달리 말하면 그 사변은 우선 주석님과 당, 이 나라의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공적인 것이다.≫

일본에 모인 8개국 수뇌들이 푸틴대통령의 일본 도착을 초조하게 기다렸다는 사실은 푸틴의 평양방문이 세계에 던져준 충격파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걸 짐작케한다. 그것은 국제 정치계의 거장으로써 세계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시고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 계시는 **김정일**영수를 만나뵈온 유일한 국가수반이 바로 푸틴대통령이였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 세계정치에 대한 **김정일**영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였다.

200여명의 대표단을 인솔한 올브라이트 평양방문에 대해 말한다면 북미간의 대결점에서 미국이 이북의 위력과 권위앞에 무릎을 꿇은 패배자의 행각이였다. 진짜 승리자의 방문은 지난해 10월 **김정일**영수의 특사자격으로 조명록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이라 하겠다. 그의 방문에 대한 미국측의 경접과 환대가 그를 실증해준다. 숙소도 국가원수급의 최고였고 경호도 국가원수급의 최상이였으며 환영만찬도 국빈급의 최상이였다. 미행정부와 의회, 워싱턴의 외교관들과 한반도전문가, 개개인사들 약 180명이 초청된 환영만찬을 위해 국무성은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꼭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만찬회장에서는 조선노래 ≪아리랑≫까지 연주되었다.

미국역사에 대통령이 외교관계도 없는 적대국의 특사를 만난 것도 이례적이지만 만나는 경우에도 6분이상 추가하지 않은 담화로 **이상이나 **준비하게 했다는 것도 특기하다. 외국수반이 전하는 친서를 그 자리에서 뜯어보는 예가 없는 미대통령이 **김정일**영수의 친서만은 그 직전에서 개봉하여 거듭 반복해서 읽어보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올브라이트의 평양방문은 조명록특사의 워싱턴 방문의 답례방문이라고는 하지만 성격상 측면에서는 승자와 패자라는 질적 차이가 있다. 자기가 씀씀하고 계획한대로 일을 척척 진척시켜 세계를 놀래우곤 하는 이북의 독특한 주체외교술은 마치 무대예술의 마술사와도 같다. 사람들속에서는 미국과 줄당기기를 하는 나라는 이북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당기면 당기는대로 끌려다니는 건 미국이다.

최근 국제무대위에서는 이북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탈리아, 영국, 필리핀, 독일, **,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자진하여 이북과 외교관계를 가졌다. 오는 5월초에는 120명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이사회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영수를 뵈옵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대표단은 서울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영수의 위인상을 높이 칭송했다. 무엇때문인가. **김정일**영수의 신묘하고 탁월한 정치외교술, 숭고한 인격과 인품, 너그럽고 겸허한 위인적 풍모에 매혹됐기 때문이다.

세계 정치지형에서 대지각변동이라 할수 있는 이 모든 역사적 사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평양시간에 맞추지 못할때, 평양행열차에 제때 오르지 못하면 국제정치의 ***이 되고 역사밖에 밀려날 수 있다는 인식을 실증한 것이라 하겠다. 현실은 이북을 제쳐놓고 그 어떤 세계정치문제를 논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만큼 이북은 세계정치의 중심에 우뚝 서있다.

이북은 세계정치의 대원로이신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이어나가시는 **김정일**영수의 탁월한 영도로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고 존엄높은 강국으로 되었다.

김일성주석의 영도밑에 21세기에 세계로 통하는 길이 평양에서 열렸다면 21세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세계의 길은 세계정치의 원로이시고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영수의 영도밑에 평양으로만 통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에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

김윤식 / 한민전 평양대표부 시사레포트 11호, 주체90(2001)년 11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루려는 것은 온 겨레의 일치한 의지이며 지향이다.

그런데 지금 이남에서는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의 길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들이 계속 저질러지고 있다.

이남당국의 최근 행태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남당국이 미국에서 있은 테러사건을 빌미로 그 누구의 ≪동향≫이니 ≪철통 같은 안보태세≫니 뭐니하면서 전군과 전경찰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전력공백≫을 메운다고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력을 끌어들여 긴장상태를 격화시킨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남당국의 이 같은 처사는 매우 괴이한 소동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 습격사건이 발생한 당시 이남에서 ≪비상경계태세≫가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 테러범들이 이남을 공격하겠다고 한적도 없었고 어디에서 특별히 위험을 조성한 것도 없었다. 도리어 그때 남북간에는 중단되었던 당국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었다.

9월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평화보장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들이 많이 합의되어 온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남북쌍방은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하였다.

그런데 이남당국은 응당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왕청같이 ≪비상경계조치≫를 취하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켰으니 이것이야 말로 용납될 수 없는 배신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도 이북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촉진시키려는 염원으로부터 이남당국에 백해무익한 긴장조성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담화문도 내고 전화통지문도 보내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랬지만 이남당국은 이 모든 정당한 요구들을 외면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이북을 걸고 들면서 비방중상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남북관계는 다시금 냉랭해지고 10월로 확정하였던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과 태권도시범단의 서울방문이 연기되게 되었다.

문제는 이남당국이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지게 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족보다 외세를 더 중시하고 민족의 이익보다 외세의 요구와 이익을 따른 데 있다.

미국에서 습격사건이 일어난 이후 미지배층은 보복공격을 떠들면서 저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끈질기게 요청했다. ≪반테러≫를 빙자한 미국의 이러한 책동이 저들의 침략과 강권정책을 노골화하기 위한 술수였다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비법적인 무력침공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무력행사를 아프가니스탄만이 아니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은 전쟁의 불길이 임의의 시각에 한반도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제반 사실은 ≪비상경계조치≫를 취한 이남당국의 책동이 미국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었으며 그것은 우리 민족이 직접적인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이행이 아니라 미국에 동조하여 그 품에 놀아난 이남당국의 책동이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온 겨레는 이남당국의 분별없는 처사를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반역행위로 낙인찍고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남당국은 겨레의 통일의지와 지향을 직시하고 ≪비상경계조치≫를 시급히 해체해야 하며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눈치를 살피며 그 지휘봉에 놀아나게 되면 나라와 민족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교훈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하고 있다.

외세의존심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에 살아야 한다.

민족자주가 민족의 운명개척과 부강번영의 보검이라면 외세의존은 나라와 민족을 망치게 하고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는 독약이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통해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루어나간다는 것을 온 세상에 엄숙히 다짐했다.

우리 민족의 힘이 제일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이 힘을 합해 나간다면 어떠한 외세의 도전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조국통일도 능히 실현할 수 있다.

모두다 민족자주의 길, 애국애족의 한길을 걷는 참다운 애국자로 통일조국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자.

제6차 북남상급회담이 열렸다



≪평양 11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제6차 북남상급회담이 9일 금강산려관에서 열렸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책임참사 김령성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성원들과 수원들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통일부 장관 홍순영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성원들과 수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우리측 단장이 먼저 기본발언을 하였다.

그는 지난 9월에 있은 제5차 북남상급회담에서 쌍방이 6.15북남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리행해 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당면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하였지만 오늘 합의사항리행이 예상밖의 사태로 중단되고 북남관계가 곡절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지난 회담이후 쌍방합의사항의 리행과정은 북남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확증해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북남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이며 이것은 북과 남이 협력하고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출발적 기초이고 공동의 행동기준이라고 하면서 이 정신을 존중하고 잘 살려 나가는 것은 오늘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신과 남측을 신뢰하는 립장에서 우리측은 주변정세가 복잡한 속에서도 상급회담을 재개하고 협력교류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들을 진행하였으며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과 태권도시범단교환사업을 비롯하여 제5차 상급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을 리행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의 이러한 적극적인 립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지난번 회담에서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고도 돌아 앉기 바쁘게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며 민족보다 외세와의 ≪공조≫를 우위에 놓고 예상밖의 위험한 사태를 조성하여 쌍방합의를 리행할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특히 남측은 엄중하게도 제4차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교환과 우리측 태권도시범단의 서울방문,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불과 며칠 앞둔 때에 ≪반테로≫라는 미명하에 우리측을 겨냥한 ≪비상경계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인민군대의 ≪동향주시≫와 ≪전력공백≫을 운운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공군무력을 끌어 들이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도발적인 군사연습소동을 벌리며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킨데 대하여 신랄히 규탄하였다.

그는 외부에서 벌어 지는 일을 놓고 무력을 증강하며 전시와 가까운 긴장상태를 조성한것은 오직 남측밖에 없으며 이것은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6.15북남공동선언의 근본정신과 완전히 배치되는것이라고 까밝히면서 외세에게 편승하여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킨 남측의 처사는 민족의 리익을 해치고 북남관계를 후퇴시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뿐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남측이 북남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도 그에 대해 변명하면서 도리여 우리에게 ≪유감≫이니, ≪우려≫니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추궁하고 남측은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결상태를 격화시켜 제5차 상급회담 합의사항 리행을 중단시키고 북남관계를 위험한 상태에 몰아 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우리측 단장은 이번 사태의 근원은 주체성을 상실한 남측의 대미추종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남측이 외세에 편승하여 제5차 북남상급회담 합의사항들이 리행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은 민족자주통일을 근본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근 1년 반이 되여 오지만 남측의 립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남측이 지금도 우리를 ≪주적≫으로 간주하면서 위험한 군사적 조치와 도발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운동단체들과 애국인사들을 ≪리적≫으로 몰아 체포투옥하고 박해를 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남측이 최근 밖에 나가 그 누구를 ≪개혁≫,≪개방≫에로 ≪유도≫하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놀음을 벌린데 대하여 까밝히면서 이것은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고 두 제도의 공존에 기초한 통일로 지향해 나갈데 대한 공동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존엄을 해치며 체제를 건드리는 용납 못할 엄중한 도전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제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제5차 상급회담 합의사항리행이 문제가 아니라 북남공동선언의 운명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측이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길로 나가겠는가, 아니면 외세에 편승하여 반북대결의 길로 나가겠는가 그리고 상급회담의 합의사항들을 리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립장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측 단장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며 쌍방합의사항을 하루빨리 리행하고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남측이 ≪비상경계조치≫해제를 비롯하여 현재의 살벌한 환경과 분위기를 일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답부터 명백히 하고 중단된 합의사항리행일정을 재조정하는데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담에서는 남측 수석대표가 발언하였다.

회담은 계속된다.

제6차 북남상급회담 계속 진행

≪고성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제6차 북남상급회담이 9일에 이어 10일에도 계속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우리 측 단장은 첫날회담에서 우리 측이 현 북남관계에서 빚어 지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며 6.15북남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북남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였지만 남측이 이에 명백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릇된 립장과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금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지적하였다.

그는 남측이 취한 그릇된 태도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갈데 대한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배치되게 대결을 추구하는데 그 출발점을 두고 있으며 ≪외세공조≫와 ≪주적론≫에 빠져 동족을 해치려는 자세를 그대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는 북남공동선언을 떠나 공리공담이나 하자고 남측과 마주앉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남측이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중단된 북남사이의 래왕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은 물론 쌍방사이에 협력교류를 위한 좋은 합의들도 이룩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측 단장은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화와 협력교류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는데 장애를 조성하는 일을 하지 말데 대한 문제, 남측이 11월중에 ≪비상경계조치≫를 해제하는 경우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제5차 상급회담 합의사항의 리행을 위한 일정들을 밝힌 우리 측 공동보도문초안을 제기하였다.

회담은 계속된다.



6차 장관급회담 결렬, 이산상봉도 무산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됐다.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남측 대표단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실무접촉에서도 남북간에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장소 등과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오전 7시부터 15분간 북측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양측 수석대표의 종결발언을 거쳐 회담 일정을 끝낸 뒤 오전 8시께 설봉호 편으로 장전항을 떠났다.

남북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냄에 따라 회담 진행 과정에서 합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내달 10일부터 금강산서 두차례 이산가족 상봉≫도 백지화되게 됐다.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7차 장관급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등 다음 회담 일정조차 정하지 못함에 따라 9.11 미국테러 대참사 이후 불거진 남북간 경색국면은 향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남북 대표단은 13일 심야 수석대표 접촉과 14일 이른 새벽 실무접촉 등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통해 제4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과 경추위 2차 회의 등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 방안과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경추위 2차 회의 개최 장소와 관련해 남측은 서울을, 북측은 금강산을 각각 고집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현재로선 7차 장관급회담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앞으로 상황이 진행돼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영(洪淳瑛) 수석대표 등 남측 대표단 39명은 이날 낮 12시 전후로 속초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 대표단은 지난 8일 6차 장관급회담 참석을 위해 설봉호 편으로 장전항에 도착, 일정을 이틀 연기해가며 계속된 북측과의 회담 과정에서 한 때 내달 10일부터 일주일간 금강산에서 두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키로 하는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었다.

이충원 기자 chungwon@yna.co.kr

제6차 북남상급회담이 끝났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금강산에서 열렸던 제6차 북남 상급(장관급)회담이 14일에 끝났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갈데 대한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준수하며 제5차 상급회담 합의사항들의 조속한 이행과 북남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려는 입장에서 민족앞에 좋은 결실을 내놓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

우리측은 지난 상급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북남관계가 격화되게 된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는것을 명백히 밝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현실성있는 대책들과 공동보도문 초안까지 주동적으로 내놓았다.

특히 우리측은 쌍방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 회담 날짜를 이틀간이나 연기하면서까지 인내성있게 상대측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지만 고집스러운 남측의 그릇된 태도로하여 결국 회담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게 됐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늦게나마 외세공조와 위험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쌍방 합의사항 이행에 장애를 조성해 온 책임을 느끼고 북남 사이에 대화와 내왕(왕래), 협력을 새롭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는데로 나올 것을 알아들으리만큼 설명했다.

그러나 남측은 북남공동선언 이행과 제기된 문제 해결은 안중에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번 회담에 나와 일방적인 군사적 경계조치와 무력증강 등으로 우리측을 자극한데 대해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회담 전기간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저들의 부당한 비상경계조치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회담 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온당치 못한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남측 수석대표는 앞으로 서울에서 진행하게 될 제7차 상급회담의 날짜문제와 제2차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장소문제를 구실로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일정을 비롯해 쌍방 실무대표들이 6일동안에 걸쳐 진지하게 협의하고 합의해 놓은 공동보도문에 합의사항들마저 고의적으로(고의로) 뒤집어엎고 회담 자체를 결렬시키는 것과 같은 무례한 행위를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이번 회담의 마감시각에 북남관계를 과거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려는 불순한 목적 밑에 6차 상급회담은 어떠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도 된다는 입장까지 노골적으로 취함으로써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제6차 상급회담을 아무런 결실도 없는 첫 회담으로 되게 만들었으며 특히 이미 합의된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사업을 12월 10일을 전후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2박3일간씩 할데 대한 합의마저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번 회담에서 취한 남측의 모든 행위는 북남관계와 북남공동선언의 운명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전과정은 남측이 북남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줴버리고(버리고) 대결을 추구하고 있으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측 단장은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결속하면서 이번 회담이 남측의 부당한 태도로 말미암아 결실없이 끝나게 됨으로써 쌍방 합의사항들의 이행이 어렵게 되고 북남관계가 악화되게 될 새로운 위험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남측에 있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측이 대화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아야 하며 주적논을 버리지 않고 외세와의 공조로 그 무엇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으로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우리측 단장은 남측은 우리의 성의와 아량, 적극적인 노력에 역행하여 이번 회담을 파탄시킴으로써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북남관계 발전과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 이행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데 대하여 역사와 민족앞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1년 11월 14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제6차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성명

내외의 기대와 관심속에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제6차 북남 상급(장관급)회담이 진행되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 제5차 북남 상급회담 합의사항 이행이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긴장한 정세하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그 어느때 보다도 북남 쌍방이 인내력을 발휘하며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사태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우리측은 어떻게 하나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부합되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려는 입장으로부터 합리적인 제안들과 함께 공동보도문 초안까지 제시하고 그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측은 공동보도문 초안에서 연기된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사업을 남조선에서 조성된 사태를 시급히 가시고 11월 중에 진행할데 대한 문제, 동포애적 견지에서 현 시기 그 해결을 절실히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할데 대한 문제, 철도, 도로 등 끊어진 민족의 동맥을 잇고 경제분야를 비롯한 각의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북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금강산에서 12월 초에 열데 대한 문제, 그밖에 북남 태권도시범단의 교환사업을 남측이 취한 비상경계조치 해제와 함께 빠른 시일안에 성사시키며 제7차 북남 상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우리측의 이와같은 제안들은 북남관계의 현 실태와 겨레의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것이 실현되면 의심할 바 없이 현 북남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려 온 겨레에게 화해와 단합과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될 것이였다.

그러나 남측은 이번 회담의 시작부터 결실없이 돌아갈 것도 생각하고 왔다고 하면서 합의문 초안도 마지못해 뒤늦게 내놓는 등 심히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였다.

회담과정에 남측은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걸고 그 무슨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무력을 증강했으며 주적론을 제창하면서 북남관계를 오늘과 같은 엄중한 상태에 빠뜨린 저들의 행위를 시인, 사죄할 대신 오히려 그것이 저들 내부 문제라느니, 국제관계 문제라느니 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으며 회담 앞에 계속 인위적인 난관만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우리측 대표단은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회담 앞에 가로놓인 장애를 타개하며 훌륭한 결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의에 성의를 거듭하였다.

우리측은 남측의 의사도 존중하면서 끝내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12월 11일 전후하여 2박3일 동안 금강산에서 각각 진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합의하는데 이르게 하였다.

바야흐로 제6차 상급회담은 북남 쌍방이 공동보도문을 민족 앞에 내놓는 것으로 결속할(끝낼) 수 있는 국면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남측대표단 수석대표라는 사람은 회담에서 곧 발표하게 될 공동보도문과 관련하여 쌍방 실무자들이 애써 합의하여 놓은 내용들 마저 순간에 제멋대로 뒤집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해 나섰다.

그는 아무런 타당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독선적으로 쌍방이 실무급에서 합의하고 문안들까지 다 정리하여 놓은 공동보도문을 전면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밤중에 돌아가려는 것과 같은 무례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남측 통일부장관이라는 직분으로 보나 북남 상급회담 남측수석대표라는 위치로 보나 심히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며 도덕이 없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이번 상급회담은 북남대화 역사에 있어보지 못한 6박7일간의 긴 회담으로 기록되었으나 온 민족의 관심사로 되고 있고 당사자들이 애타게 기대하고 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사업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을 합의하고서도 남측 수석대표가 그것을 뒤집어 놓으므로서 결국 결실없는 회담으로 되고 말았다.

북남 상급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무성의와 특히는 남측 수석대표의 전횡과 불순한 태도에 있다.

제6차 북남 상급회담 북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취한 남측 수석대표의 대화 부정적이며 독선적인 처사에 대하여 항의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는 남측 수석대표라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회담의 전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진실로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며 누가 그것을 부정하고 북남관계 발전에 훼방을 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 주었다.

우리 겨레는 누구도 이번 사태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남측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민족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주체90(2001)년 11월 14일 금강산

장관급회담이 결렬된데서 교훈을 찾자



남북장관급회담이 6박7일에 걸쳐 무려 1백35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끝내 결렬됐다는 소식이다. 그 이유는 남한 전역에 선포된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남북 양측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된다.

북측에서는 ≪비상경계조치≫를 해제하고 남북회담 일정을 합의하여 나가자는 입장이고 남측에서는 ≪비상경계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남측 내부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 ≪비상경계조치≫란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이며 그것을 해제하고 남북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그 내부적 사연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한 해명이 바로 제6차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비상경계조치≫란 쉽게 말하면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공조≫를 의미한다. 외세공조라 할지라도 상식에 훨씬 밑도는 지나친 정도의 사대주의적 입장과 자세를 보여주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911사태가 터지자 군탱크를 주한미대사관 주변에 동원시켜 이에 대해 미대사관측에서도 보기에 민망한지 그 탱크를 치워달라고 까지 주문한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비상경계조치≫는 미국정부에 대한 남한정부당국의 과잉충성인 한편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긴장조성이며 동시에 남북공조관계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는 것이다.

물론 남측 당국자들이 ≪비상경계조치≫를 선포할 때 미당국측만 신경써서 서둘러가면서 발표하느라고 미쳐 이것이 남북관계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 긴장요소이며 제6차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될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뒤 늦게나마라도 이것이 남북관계에 예민할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남측관계자들이 남북회담에 임할 때 ≪민족공조≫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기본적인 원칙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의제들을 원칙에 앞세워 그것들만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이번 회담의 결렬의 주원인이었다고 분석한다.

또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진단한다. 남한에는 남북지도자들이 손잡은 이후의 시기에도 그동안 공동선언과 배치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지금 양심수 123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6.15선언을 실천하겠다고 급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통일언론인들을 연행하고 언론사의 기재들을 모두 압수해 가는 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조국을 이루자는 것만이 일념이라고 외치며 온몸을 희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학생 지도자들이 연일 수배당하고 연행당하며 마치 일제시기에 일본경찰들에 의해 쫓기는 사회가 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남측당국자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6차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남북회담을 ≪민족공조≫에 기초한 입장과 자세로 돌아서기만 하면 당장에 풀리는 문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상경계조치≫를 당장에 푸는 문제를 비롯하여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청년학생들의 통일운동탄압을 중지하고. 통일언론인들과 해내외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는 입장과 자세로 변화된다면 남북관계는 정상화 될 것이다.

따라서 남측당국은 이번 회담의 결렬이 준 교훈들을 철저히 깨달아야 외세의 입김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서 이룩하는 평화적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종전의 입장과 자세를 고수한다면 남북관계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이용식 2001-11-14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정부는 ≪비상경계 태세≫부터 해제해야

모든 대화에 앞서 상호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

금강산에서 열린 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끝내 결렬되었다.

예정된 일정까지 늦춰가며 4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진행했지만 끝내 ≪비상경계 태세≫라는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 식량 지원은 무산되게 되었고, 7차 장관급회담의 날짜마저 잡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지난해 6.15공동선언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 당국간 대화의 결렬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나 부문별 교류도 전면 중단 상태이고,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도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김대중 정부는 그간의 ≪햇볕 정책≫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현재의 경색국면을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남북대화를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 ≪근본≫과 ≪특단≫은 모든 대화에 앞서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요체는 바로 ≪비상경계 태세≫를 해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테러사태 때문에 비상경계 태세를 내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측을 잠재적인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처럼 상호간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임하는정부의 자주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겉으로는 ≪햇볕≫을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미국의 ≪눈치≫나 보는 통일정책은 필시 단기적인 정치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이제 김대중 정부가 먼저 경색국면의 빗장을 열어야 하고 그 결단을 빠를수록 좋다.

2001년 11월 1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이상현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얼마전 일본반동들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테러보복전쟁지원의 명목하에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조작하였다.

이 법이 조작공포됨으로써 군대보유와 전쟁포기를 선언한 일본헌법 9조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되고 일본 ≪자위대≫는 합법적으로 군사화를 다그칠수 있게 됐을뿐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임의의 시간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 뛰어들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패망후 50여년간 끈질기게 추구해온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는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과 아시아나라들에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사죄보상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역행하여 지난날의 피비린 침략사를 정당화하고 미화분식하면서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려왔다. 동시에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해외침략의 합법적 장치를 조작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갖은 술수를 다해 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그러한 일본이 미국의 아프간전쟁을 절호의 기회로 일본 ≪자위대≫의 해외침략을 합법화한후 첫 침략예봉을 한국에 돌릴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일본의 이같은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은 일제에게 가장 큰 재난과 고통을 겪었던 우리 겨레의 치솟는 민족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조작을 일본의 과거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그의 해외팽창을 반대하는 우리 민중과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천추에 용납할수 없는 대범죄행위로 단죄규탄하며 이 법의 무효화를 강력히 주장한다.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일본이 지난 세기처럼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 민족은 어제날의 민족이 아니며 아시아도 어제날의 아시아가 아니다. 우리 민중은 일본의 재침**에 ***을 **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구천에 사묻힌 원한의 피값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불변의 의지를 안고 있다.

일본은 대세의 흐름과 우리 민중의 견결한 반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해외침략기도를 버려야 하며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일본이 끝내 군국주의의 팽창의 길로 나간다면 지난날보다 더 처참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 국민은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재침의 칼을 꺾어버리고 일본의 과거죄행을 반드시 결산하여 민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 국민과 세계평화애호민중과 함께 반일항전에 과감히 떨쳐 일어나 일본의 재침야망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야 말 것이다.

주체90(2001)년 11월 7일
서울

≪청소년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좌 개설





청소년의 통일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를 위한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좌가 개설돼 주목된다.

통일교육협의회 청소년 통일교육분과가 지난 10월 2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강좌는 현직 교사와 시민사회단체들 중 통일교육 담당자로서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 통일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측은 이번 강좌를 열게 된 취지에 대해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 대한 통일교육은 성인에 대한 통일교육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요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통일교육 관계자들의 만남과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며 특히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통일환경에서의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통일교육협의회의 박지용 간사는 ≪이번 강좌는 통일기행과 토론회, 수련회 등 제도권에서 배우는 것과 다른 색다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강의 내용도 통일방안과 북한 사회, 문화, 음악 등 청소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남은 강좌는 총 8강 중 6강으로 11/10 강화도 기행, 11/15 북한 사회 어떻게 볼 것인가(이찬행, **김정일** 저자), 11/22 음악으로 알아본 남북의 문화(노동은 목원대 교수), 11/29 대북지원사업과 민간교류 사업의 현황과 문제(오재식 월드비젼 대표), 12/6 민족문제, 민족주의와 통일(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마지막 강좌는 12월 8일부터 이틀간 통일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련회 일정이 잡혀 있으며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기독교 연합회관 90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측은 현재 강좌 참가자는 ≪45명 내외로 현직교사와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담당자들이 대부분≫이며 내년에는 ≪이번 강좌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질 높은 강좌를 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의 관계가 호전되고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아직도 반공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청소년의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08

통일맞이, 판문점 ≪통일기행≫ 떠나



≪(사) 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통일맞이)≫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마음을 안고 판문점 통일기행을 떠났다.

통일맞이는 9일 경의선 열차의 시발역인 신촌 기차역을 오전 9시에 출발하여 오두산 통일 전망대, 임진각, 판문점, 도라 전망대, 3땅굴 등의 견학을 위한 통일기행길에 올랐다.

지난여름 통일맞이가 16박 17일 동안 진행한 ≪2001 휴전선 평화통일 대행진≫에 참여한 사람들 중 66명이 참여해 평화통일 대행진 일정에서 다 둘러보지 못한 곳들을 중심으로 통일기행이라는 테마기행을 가지게 된 것이다.

통일맞이 정도상 사무처장은 이번 통일기행은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여름 평화통일대행진의 연장선상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주최측의 취지에 따라 이번 통일기행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으로 6.15남북공동선언과 영화 ≪JSA(공동경비구역)≫으로 그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볼 수 있었던 곳이다.

신촌역을 출발한 통일기행단은 김창수(민화협 정책실장)씨와 이시우(사진작가)씨의 설명을 들으며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올랐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참가자들은 ≪자유로≫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북녘 땅을 바라보았다. 이시우 씨는 이곳의 ≪자유로≫란 명칭과 조만식 동상은 90년대의 유물로 그 적절성에 대해 재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을 가르고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앞의 한강하구수역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남북 민간 공용 수역으로 정전협정에 의하면 남북이 모두 드나들어도 위법이 아님을 지적하고 현재 이 곳은 북방한계선이라는 잘못된 법 적용으로 세계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행단은 임진각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이들은 따뜻한 햇볕 아래 삼삼오오 둘러앉아 그간 못 나눈 얘기와 대행진의 후일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점심을 마친 기행단은 판문점으로 향했다. UN군 관할하의 판문점은 초입부터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을 받아 이곳이 분단의 현주소임을 실감하게 됐다.

먼저 방문자 교육을 받고 ≪공동경비구역≫ 영화로 우리에게 인상깊은 곳, 남북한의 경비병들이 마주 서 있는 모습으로 널리 알려진 회담장으로 이동해 내부를 둘러봤다.

이어 제3초소를 들러 손에 잡힐 듯한 위치에 있는 구 정전협정 회담장과 송악산,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의 인공기(160M 높이)가 게양돼 있는 기정동 선전마을, 제4초소(도끼사건 장소로 알려진 곳)를 바라보았다.

판문점 견학을 마친 기행단은 도라 전망대를 거쳐 1978년에 발견됐다는 제3땅굴을 견학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날 기행에 참여한 사람들 중 김기중(외국어대, 3학년)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기행에 참여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김기중 학생은 ≪지난 여름 평화통일대행진을 참여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며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아버지를 이번 기행에 모셔 오고 싶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 어머님만을 모셔왔다고 말했다.

김기중 학생은 이번 기행에서 어머님이 ≪북쪽 병사나 북녘 땅을 직접 보면서 북한 동포가 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핏줄이라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이에 김기중 학생의 어머니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이상하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또한 평화통일대행진단의 단장이었던 권처홍 옹은 오늘 기행에 대해 ≪매우 유익했다≫는 말과 함께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통일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맞이는 평화통일대행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오늘과 같은 테마기행을 더 가질 예정이며 또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휴전선 평화통일대행진을 비롯한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테마기행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10

≪통일되면 할머니 손잡고 사촌들 만날래요!≫

-오두산 전망대에서 열린 ≪꿈나무 통일체험한마당≫



≪통일이 되면 제일먼저 황해도에 계신다는 할머니 사촌부터 할머니 손잡고 찾아가고 싶어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제2회 ≪꿈나무 통일체험한마당≫ 글짓기부문 참가자 정지혜 어린이의 말이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정지혜(서울자원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는 ≪할아버지 제사 때마다 사촌들이 보고싶어 우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아팠다≫며 황해도가 고향이신 할머니의 가슴아픈 사연 때문에 평소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할머니의 이와 같은 사연을 소재로 한 산문을 열심히 쓰고 있던 정지혜 어린이는 ≪통일은 서로를 마음을 터야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 청소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어른스런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다 보이는 북녘 땅을 화폭에 옮기고 있던 한수진(서울용강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는 ≪남북이 서로 친척간 떨어진 사람들이 꼭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며 캔버스에 옮겨놓은 그림에 붓질을 열심히 했다.

또한 서울 등촌동에서 온 김아름(서울등명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도 북녘 친구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를 원고지에 꼭꼭 눌러 쓰면서 북녘의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글짓기와 그리기 등의 대회를 진행했으며 낮 1시 30분부터 초. 중. 고 학생들이 참여해 노래와 연극, 시낭송 등의 식전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본 행사로 이어졌다.

한편 이 행사를 준비한 신수일(중등교육과 장학사) 씨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는 북한의 학생들과 함께 희망과 통일을 노래하고 싶다는 일념 하에 북녘 땅이 보이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행사는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느낄 수 있는 체험중심 활동의 필요성에 의해 평소 학교에서 교과학습을 통해 익혀온 내용을 중심으로 1부 식전행사를, 통일염원의 마음과 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의 공연 등을 본 행사에서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은 천 여명의 학생들이 군데군데 모여 통일을 향한 각자의 마음을 담는 모습으로 가득했다. 참가한 학생들이 진지하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한강 건너에 보이는 북녘 땅과 어우러져 멀지 않은 미래의 통일을 꿈꿀 수 있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10

통일연대, 첫 ≪범국민행동의 날≫ 전국적으로 열어

- 전쟁 중지와 세계 평화를 위한 ≪미국 반대≫ 거리 투쟁 전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는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전쟁 중지와 세계 평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미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통일연대는 15일 오전 탑골공원과 전국 각지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하고 그 첫 번째로 전쟁 반대와 세계 평화를 위한 ≪미국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탑골공원 행사에서 이종린(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6차 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은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빙자해 6.15공동선언을 훼손하고 남북의 대결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6.15공동선언은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종린 의장은 김대중 정부의 전쟁지원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6.15공동선언의 대대적인 실천을 통해 미국의 전쟁책동을 뚫고 나가자≫고 주장했다.

이어 진관(불교연대) 대표는 정치연설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한국정부가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규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선언문을 통해 미국은 ≪자신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의 반미자주 투쟁을 보복전쟁이라는 최악의 카드로 맞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호시탐탐 북을 연계할 음모와 이남 정부에게는 이 전쟁에 편승할 것을 강요해 남북의 교류와 화해분위기에 돌이킬 수 없는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때에 통일연대의 범국민행동의 날은 ≪전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정과 6.15공동선언 실현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크게 하나로 모아≫내는 계기이며 ≪미국과 수구 반통일 세력의 민족분열 책동과 6.15공동선언 실현 방해 음모를 막아내고 통일대장정을 더욱 광범위하게 펼쳐내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이규재 위원장은 주장했다.

행사를 지켜보던 변성훈(88, 종로) 할아버지는 ≪테러는 반드시 응징해야 하지만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아프간에 민족의 이해와 달리 친미정권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통일나무≫를 만들어 6.15공동선언에 대한 의지와 결의를 적은 ≪통일열매≫를 다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행사 전후에 전쟁반대 서명을 받고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고발한 포스터를 전시하는가 하면 이번 전쟁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상세하게 기록한 홍보물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 대해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은 ≪모든 국민들이 6.15공동선언을 이해하고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집회나 토론회가 아닌 각계 각층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일상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울산, 부산, 전주 등 지역 통일연대가 구성된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통일연대의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15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통일운동세력에 국한된 활동에서 벗어나 각계 각층의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15



미군은 이땅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9일～11일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경향각지에서 미군철수, 미군기지반환투쟁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지역에서만도 33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군기지되찾기운동에 나섰습니다. 미군철수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미군은 이땅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이런 화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땅에서는 오래전부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근리학살만행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각계 민중들 속에서 미군철수투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야단체와 시민단체의 주도로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반미투쟁대책위원회 등 조직들이 나오고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제침략군은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지체없이 이땅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이땅에서 당장 나가야 하는 건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우리 민중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화근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의 50여년간의 행적은 만고대죄로 얼룩진 범죄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땅을 강점한후 실시한 군정통치시기 미군이 감행한 범죄적 행위와 특히 6.25전쟁시기에 저지른 죄악은 그들이 야수들의 무리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양키침략군은 무차별 폭격으로 이땅을 폐허로 만들었고 각종 살인무기와 수단을 동원해서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고한 주민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생매장하거나 불태워죽이는 등 짐승도 낯을 붉힐 살인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에서의 양민학살사건은 그 한 실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범죄가 개별적인 미군부대나 미군에 의해 저질러 진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의 사전계획에 따라 감행됐다는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미군이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사죄 한마디없이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땅을 강점한 이래 지금까지 살인, 폭행, 방화, 강간, 강도, 고엽제살포, 독극물방류 등 치떨리는 각종 범죄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라 살인자, 침략군이라는 건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났습니다. 양키침략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피맺힌 원성은 구천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의 피맺힌 원수, 미제침략군은 당장 물러가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이땅에서 당장 물러가야 하는 건 또한 미군이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격화시키면서 새전쟁도발을 위해 광분하는 전쟁광신자이고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이땅에 1천여개의 핵무기와 각종 현대적 무기를 대비해 놨습니다. 미군은 북침을 위한 전쟁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행정부 출범후 한반도정세는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있지도 않는 북의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북에 불량배국가, 테러지원국이라는 딱지를 붙였고 심지어 제1주적이라고 공공연히 선포하면서 대북강경도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북침을 노린 대규모전쟁연습소동을 연이어 벌이고 주한미군의 전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부시정권은 출범후 지금까지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한미연합특공훈련, 한미연합지뢰훈련, 을지포커스렌즈한미합동군사훈련 등 실전을 방불케하는 북침전쟁연습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한반도전력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1개 대대급 항공전력을 이땅에 배치하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미국의 전쟁준비책동에 의해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이 열리고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기운이 높아갈때마다 한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면서 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 조국통일의 길이 열리게 되자 미국은 그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6.15공동선언이행에 역행하는 못된 짓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치않게 북의 미사일문제와 상용무력축감문제 등을 들고나와서 6.15공동선언후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면서 한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말로는 남북관계개선을 지지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전의 대결과 불신의 원점에로 되돌려세우려하고 있습니다.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개선이 오늘에 와서 소상상태에 놓이게 된 건 전적으로 부시행정부의 반통일책동때문입니다.

이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로 무력으로 뒷받침하고 새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전역을 식민지화하려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중은 온갖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가셔질수 없으며 자주적 통일이 실현될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철수문제는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재난과 불행을 제거하는가 못하는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가 분열을 지속시키는가, 우리 민중이 자주권을 찾는가 아니면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계속 쓰고 있는가 하는걸 결정짓는 핵심적이고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각계 민중은 반미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주한미군을 이땅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때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통일이 앞당겨지게 될겁니다.

네, 미군은 해방자도 아니며 미국은 우방도 원조자도 아닙니다. 미군은 우리 민중에게 재난만을 덮씌운 철천의 원수입니다. 피맺힌 원수와 한지붕밑에서 반세기이상을 살아온 건 정말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이 말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6일～8일



지구촌 도처에 널려 있는 미군기지들에선 어느 날, 어느 시간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는 때가 없는데요. 미군기지는 각종 범죄의 산실이라고 할겁니다. 윤정원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9일 일본 오끼나와현 중부의 기다단시가에서 미공군 가데나기지의 353**작전대소속의 *** ***이등병이 20대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강간을 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미군사병 두명과 다른 미국사병 그리고 피해자 친구들에게 범행현장이 목격되어 큰 소동이 나자 범죄자는 기지내로 도주하고 경찰은 차량번호로 범죄자를 추적해 7월 2일 체포했습니다.

범죄자가 일본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속에서 미국정부는 처음 이 사건의 범죄자를 체포하려는 일경찰의 영장을 무시했습니다. 이유는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본인의 인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 미군의 법률을 무시할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그럼 미국이 말하는 인권이 무엇인가하는 그점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주는 것인가.

일본에서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해만 일반인과는 다른 특권을 보장하는 일미지위협정은 불평등조약이며 반인권적 조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느낄수 있는 것은 식민지종주국과 식민지 등에서 권력의 상층을 점령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인권을 사색하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역설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정부에 의한 나토지위협정과 한미지위협정, 일미지위협정의 차이가 바로 그 대표적 예인 것입니다. 미국은 미군의 인권을 거론하기 전에 피해자와 오키나와현 민중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의있는 사죄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합니다. 세계 곳곳, 또 한국에서 벌어지는 미군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미국의 오만은 한국민들과 주변 민중들를 치를 떨게 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미국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정부에게 있어서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본정부는 미군의 성폭력사건을 6월 30일에 열린 일미수뇌회담의 방해로만 치부해 버렸습니다. 고이즈미총리는 미국의 부시대통령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항의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일미군기지는 일본에게 득이 되고 있다는 등의 존재의의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이해마저 변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본정부의 태도는 다른 어느때보다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대응을 잘못했을 경우 수뇌회담의 성과를 자칫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보다시피 일본정부에게는 피해자도, 오키나와현 민중들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6월 29일 고이즈미총리는 이러한 문제는 국민감정에 많은 영향을 불러온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재일미군기지의 75%는 오끼나와현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후 지금까지 되풀이되어 벌어지는 미군범죄의 원인은 미군기지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미군 범죄가 발생할때마다 재발의 방지를 약속하지만 결국 언 발에 오줌누기였다는 것은 다시 발생된 이번 사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1995년 3명의 해병대원에 의한 소녀강간사건을 비롯해서 최근에까지 계속되어오는 연속방화사건, 소년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사건, 나토미군병사의 민가침입사건, 여자중학생에게 **행위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으며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될 것입니다.

재일미군이 존재하는 한 미군범죄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공군 가데나기지에서 미국*** 2001을 개최하여 축제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다, 성폭행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오만한 미국의 속마음을 알수가 있죠.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미일 양정부에 무엇을 위한 일미안보인가를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미군기지의 철수없이는 오끼나와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국정부도, 일본정부도 그리고 오끼나와의 민중들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생명의 존엄은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미국은 자신들의 기지를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지난 5월 미군용 ****의 ****섬에서 군사훈련의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 중지선언은 섬민중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성과였죠. 미국측도 성명에서 미기지섬에서의 주민이 미군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오끼나와현 민중들도, 일본의 양심적 민중들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민중들도 미군의 존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군의 존재를 원하는 것은 권력자들뿐입니다. 미국은 그점을 잊지 말아야 할거예요.

미국이 정말로 인권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범죄의 온상인 미군기지들을 철수하며 미사일방어체제 등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세계평화공존과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며 2001년 세계평화애호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죠.

아시아의 미군기지철수를 위해 오끼나와 민중과 한국, 일본민중들은 참고 있지만은 않을거예요. 더욱더 단결일치된 힘으로 투쟁할겁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보는 미군기지철수이외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보게 되는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과 테러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당한 9.11대테러와 같은 참변을 앞으로 다시 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을 겁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발족 공동선언문

세계무역센터 테러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째 되던 지난 10월 10일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765개 사회단체 시국선언≫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테러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보복전쟁의 중단을 간절히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보복전쟁이 시작된 지 두 달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정부가 아프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잔혹한 국가차원의 테러와 국제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반성없는 패권주의를 바라보면서 세계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벌이는 이번 전쟁을 중단시키고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미국의 비인도적 살상무기 사용과 아프간에 대한 국가테러행위를 규탄한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공습과정에서 미군이 민간 거주지역, 병원, 적십자 건물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는 태도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공습에 있어서 민간인 지역과 군사용 지역간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프간 민간인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거나 민간인들 역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이라고 비난받아왔고, 실제로 대인지뢰와 똑같은 효과를 갖고있는 이른바 집속탄까지 사용하고 있어 전쟁이후까지도 아프간 민간인과 어린이들의 희생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아사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식량공급을 위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공습을 중단하라는 국제구호단체의 요구를 묵살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테러조직을 뿌리뽑겠다던 미국은 결국 스스로 국가차원의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세계의 여론은 미국의 보복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그 동안 이번 보복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의 외교≫를 통해 세계각국에게 군사/정치적 지원을 강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테러사태이후 지금까지 전세계 450개 지역에서 50만명의 시민들이 반전평화 시위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전쟁이 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리아와 같은 중동국가들도 공개적으로 미국의 차별적인 중동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심지어는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서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석유자원 확보와 연루된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이에 대한 한국의 침묵을 개탄한다!

일본의 자위대 파병과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문제는 특별히 한국의 입장에서 이번 전쟁을 중단시켜야 할 심각한 이유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일본의 극적인 변화에 대해 아무런 견제를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한국의 우익정치세력과 정부의 모습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 다른 사항들에 대한 이들의 호들갑스러운 대응이 얼마나 일천한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었는지를 스스로 반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전쟁지원계획에 대한 저지행동을 결의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10일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765개 사회단체 시국선언≫에서 어떠한 형태의 전쟁지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미국측과 구체적인 파병 및 전쟁지원계획을 협의하는 등 전쟁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일체의 전쟁지원을 반대한다.

우리가 지원해야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아프간 난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이다.

오랜 기간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6.25 내전의 고통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아프간 난민들에게 형제애 차원의 난민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죄없는 아프간 어린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죽음으로 내어모는 이 정당성없는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똑같은 죄를 짓는거와 다름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아프간 난민들에게 구호품 전달을 위해 전쟁을 중단해 달라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요구를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아프간 난민지원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1년 11월 8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시민사회단체,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관련 기자회견

경찰, ≪죽여!, 찍어!≫ 폭력 휘둘러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라!



오늘 14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회답에 나서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경찰이 폭력으로 저지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미군기지 전면반환! 미군주둔비 분담금 증액 반대! 파병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에 열리는 SCM은 미국의 아프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가 전쟁지원을 약속한 상태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 남북관계마저도 불협화음을 가져오고 있어 전쟁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느 때보다도 그 회담 내용과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에선 ▲미군기지 4000만평을 반환하고 75만평의 도심의 미군기지를 새로이 확장, 신설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증액문제 ▲아프간 전쟁에 국군파병 등 한미공조 관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정현(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가 낭독한 ≪SCM 한국 대표단에 보내는 촉구문≫을 통해 SCM 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SCM 우리측 대표단에게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번 SCM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회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의서한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11/13 ≪선전전≪(오전 10시 영종도 신공항) ▲11/13 제26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오후 2시) ▲11/16 SCM 결과 반대와 규탄집회(미8군 앞)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SCM에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반미연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문정현, 박순희, 최규엽, 변연식, 윤한탁 대표는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사전약속이 안돼 조훈식 민원과장에게 항의서한만을 전달하고 조훈식 민원과장으로부터 이의 처리결과와 추후 국방부 장관면담 건에 대해 결과를 통보받기로 했다.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의 중요성과 그 결과가 미칠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회견장에 울린 경찰들의 구호 ≪죽여! 찍어!≫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시작될 즈음 경찰이 폭력적으로 이를 저지해 심한 충돌이 있었다.

경찰들은 폭력적인 경찰들의 태도에 거세게 항의하던 참가자들을 ≪죽여! 찍어!≫라고 외치며 가지고 있던 방패를 휘두르고 참가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박순희(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대표는 손가락이 방패에 찍히고 문규현(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은 안경이 박살나는 등 기자회견 참가자 다수가 상처를 입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경찰을 향해 ≪너희는 어느 나라 경찰이냐?≫며 경찰들의 폭력을 강하게 비난하고 경찰의 폭력행사에 대해 용산 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관계자는 국방부 앞 기자회견 저지에 대해 ≪국방부 정문을 막는 기자회견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간 이런 경우는 없었던 일≫이라고 밝히면서 경찰의 폭력행사와 폭력적인 언행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수없이 진행된 국방부 앞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져온 전례에 비춰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들이 휘두른 폭력과 폭언은 그 자리에 함께 한 기자들의 카메라에 생생히 담겨져 있다.



경찰책임자들이 설득력을 잃는 군색한 답변으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이 계속 된다면 이 자리를 지켜본 이들이 주장하는 ≪국적없는 경찰≫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12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한국 대표단에게 드리는 촉구문

방위비 증액, 연합토지관리계획, 아프칸 전쟁 지원과 파병을 결사 반대하며



남북 장관급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향후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참석할 한국 대표단 여러분께 부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회담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반드시 ≪2002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의 증액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몰염치하게도 2002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으로 2001년도의 4억 4천만 달러보다 33%나 증액시킨 5억8천만 달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5% 증액에 잠정합의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부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미국 정부와 이른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법제화한 이후 매년 30% 이상씩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늘려 왔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비율도 91년도의 16.8%에서 2001년도에는 43%로 늘어 왔으며, 2002년도에는 그 비율이 무려 50%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부동산 지원과 세금면제 등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 지원비는 99년도에만 3억9천7백만 달러로 직, 간접비를 합하면 무려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땅에 와 있지 결코 한국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 정부 스스로도 표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한 ≪한미소파≫조차도 5조 1항에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분담할 까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한미군에게서 임대료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에 대한 직, 간접 지원비가 국내총생산 대비 일본의 5배, 독일의 13.5배에 달한다는 것은 국방부 산하 연구 기관에 의해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한다면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귀 대표단이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늘린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역사는 두고두고 귀 대표단의 사대성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귀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막아낼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삭감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향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전면 삭감과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미국과 체결하게 될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한 ≪의향서≫에 반드시 주권국가로서의 나라의 위상





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총 7,440만 평에 달하는 주한미군 공여지 중 4,054만 평을 반환하는 대신 도심지 75만 평을 새로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은 MD 구축과 장기적인 동아시아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재편 요구를 반영한 것일 뿐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더구나 용산 미군기지, 매향리 국제폭격장, 파주 스토리사격장 등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한결같이 반환을 요구해 왔던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반환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기만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산, 부평 등 수십 년에 걸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그다지 쓰임새가 없는 땅을 무작정 점유해 오다가 이제 와서 이들 기지 일부를 내놓고 그 대신 금싸라기와도 같은 도심 땅 75만 평을 새로 요구하다니, 미국 정부가 간상모리배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귀 대표단이 미국의 요구대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는 ≪의향서≫를 체결한다면, 이는 국가의 주권을 훼손시키는 것이자, 한 평생 가까이 미군기지 반환을 염원해 온 지역주민들을 배반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귀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75만 평 공여지 추가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용산 · 의정부 · 춘천 · 원주 · 군산 등의 미군기지와 매향리 국제폭격장, 파주 스토리사격장 등의 반환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향후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미국의 대 아프칸 보복전쟁에 대한 지원과 파병 요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대 테러 응징을 명분으로 한 아프칸 보복전쟁의 본질은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치군사적 패권 추구와 그곳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 독점에 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송 · 의료 등 450여 명의 비전투요원을 파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미국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이미 전투요원 파견까지 요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미국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한 결과 우리 젊은이들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베트남 민중들에게는 씻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미국의 저 ≪더러운 전쟁≫에 말려들어 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한다면 아프가니스탄 민중은 물론 아랍 전체 민중들을 적으로 돌리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원유를 아랍국가로부터 들여오고, 불과 6개월 후에는 월드컵이라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우리나라가 전체 아랍권을 적으로 한 전쟁에 가담한다는 것은 전쟁광이 아니라면, 극단적인 친미주의자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북에 빈 라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며 자신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고, 9 · 11 테러 이후 ≪아시아 전략 2001~2002≫이라는 문건을 발표하여 향후 10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한반도를 지목함으로써 언제라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내세워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과 파병의 명분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미국의 예속국임을 자인하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귀 대표단이 미국의 요구대로 전쟁을 지원하고 파병을 하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평화애호민중들에 대한 배신이자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후퇴시키고 우리 민족의 진로에 한층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귀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서 전쟁 지원과 파병이라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오히려 전쟁 중단과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에 대한 지원을 관철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국, 조건부 한국 전투병 파견 요구한 듯

26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개최



미국이 한국정부에 남북정상회담 허용을 조건으로 아프간 전쟁에 전투병 파병을 비공개로 요구했다는 사실이 국방부 관계자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소파개정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13일 오후 2시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마당에서 열린 26차 ≪반미연대집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투병 파병이라는 조건으로 허용하겠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판태 사무처장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반환될 것으로 알려진 아리랑 택시 주차장 3천평은 이미 반환해야 마땅할 땅이라고 주장하며 이 땅을 그동안 미군이 매년 1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아리랑 택시회사에 임대를 해주고 있었다며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5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선 사회단체들은 14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안건에 대한 입장으로 ≪미군기지 전면반환, 미군주둔비 분담금 증액반대, 아프간 파병반대≫를 주장했다.

문정현(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연합토지관리로 우리땅을 빼앗기게 돼 있고 33%에 해당하는 미군주둔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젊은이를 전쟁에 보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국회나 정부가 우리 국민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를 통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정현 상임대표는 ≪자주국가가 되기 위해선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미연대집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서경원(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고문은 ≪파병반대와 일본의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해 규탄연설을 했다.

서경원 고문은 ≪전세계 지도자들은 왜 아프간 전쟁을 보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일본의 양심있는 지도자들은 자위대가 총을 들고 아프간으로 나가는데 왜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히면서 매우 격앙된 모습으로 ≪시대의 양심≫ㅍ을 향해 절규했다.

또한 김용한(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반환될 것으로 알려진 용산의 아리랑 택시 주차장 땅이 반환이 아닌 이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미군들이 (미군기지를) 이 땅에서 한 평도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용한 집행위원장, 양비엔나 수녀, 이창근(익산 미군폭격에 의한 희생자 유족회) 회장 등은 항의서한 낭독을 한 후 미대사관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그러나 미대사관측은 오늘 이례적으로 보안총책임자인 ≪데일리≫라는 여성이 직접 대표단을 만나 항의서한을 받을 수 없는 미대사관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대사관측은 이 자리에서 ≪미대사관의 정책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위에 의한 항의서한을 받을 수 없으며 입장을 전달하고 싶으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보낼 것≫을 요구했다.

양비엔나 수녀는 미대사관측의 입장을 밝히고 돌아서는 보안총책임자를 향해 분노를 참지 못하며 ≪양키 고홈≫을 외쳤다.

참가단체들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진행되는 기간동안 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선 이 주간동안 국방부와 미8군 앞에서의 1인 시위와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판태 사무처장이 밝힌 것처럼 미국의 조건부 파병요구가 사실임이 밝혀지고 이어 전투병 파병이 현실화 될 경우와 16일 발표될 한미연례안보회의의 결과가 비자주적인 결과로 귀결될 경우 이후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사회적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이날 오전, 소파개정 국민행동을 비롯한 사회단체 대표 20여명은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던 우리측 대표단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송정미 기자(jms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13



이회창일족의 범죄적 행각을 발가본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9일~11일

싸리 그루터기에서는 싸리가 돋고 독버섯밭에서는 독버섯이 돋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대를 이어 역적질을 일삼고 있는 이회창과 같은 인사들을 비유해서 나온 말이라고 할겁니다. 김현규씨 말씀드립니다.

최근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의 친일친미행적과 이회창의 반민족반통일행적, 친미행위 등을 거론하며 그가 정계에서 조속히 물러날 것을 일치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의 친일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을 일으킨바 있지만 이홍규는 8.15광복이전에 일제의 검찰기관 서기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데 직접 관여했던 철저한 친일주구였습니다.

8.15광복과 함께 마땅히 처단됐어야 할 그는 광복직후에는 친미분자로 둔갑해 미군정청이 임명하는 검사로 복무하며 애국자들을 학살하기 위해 광분했습니다. 그리고 50단선이후 1965년까지 이승만독재정권과 박정희군사정권하에서 서울지검검사, 서울고검판사, 광주지검장, 법무부조정국장, 대검검사 등을 전전하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 민중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고 애국자들을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친미파쇼분자였습니다.

최근 발굴된 일제의 ≪조선총독부급소속 관서직원록≫과 8.15광복직후 미군정청의 ≪임명사령 제64호≫는 이홍규의 죄악에 찬 행적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1930년부터 1940년까지의 ≪조선총독부급소속 관서직원록≫에 따르면 이홍규는 1925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뒤 조선총독부 검찰관서에 들어가 일제의 앞잡이로 전락했습니다. 그후 1932년 서기겸 통역으로 승진함과 함께 당시 해주지방법원 통화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3년동안 근무했으며 1935년에는 8급으로 진급해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서기겸 통역원으로 근무하면서 숱한 독립운동가들을 일제의 검찰에 밀고하고 참혹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는 일제의 충견노릇을 잘한 것으로해서 1938년 7급으로 진급해 광주지방법원 검사국 장흥지청검사국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1940년에 광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 자리를 옮겨 일제의 사상담당검사밑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전주와 광주 2곳에만 현 공안검사에 준하는 사상담당검사를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이 지역이 조선독립투쟁열기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전주와 광주에 사상담당검사를 두고 사람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고 분석해서 불온분자라는 딱지를 붙여 검거, 투옥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홍규가 사상담당검사밑에서 서기 겸 통역을 한 사실은 그가 일제의 조선인학살만행에 충실히 복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홍규가 일제의 검찰기관에 투신한 후 고속승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운동가 체포와 같은 친일매국행위를 서슴지않고 감행했기 때문이였습니다.

이홍규가 마루야마로 창씨개명한 사실과 어린 이회창과 함께 일본옷을 입고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는 장면을 찍은 사진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친일행적을 입증해주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홍규는 일제의 패망과 함께 마땅히 처단됐어야 했으나 이땅을 강점한 미군을 충실히 섬긴 이중주구였습니다. 미군정청 문서인 ≪임명사령≫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임명사령≫ 제54호는 1946년 1월 3일 작성된 문서인데 임명권자는 아놀드미육군소장이였습니다. 아놀드미육군소장은 당시 한국을 강점한 미군이 1945년 9월 11일 일제의 조선총독부를 미군정청으로 공식개편하면서 아베총독을 해임하고 임명한 최초의 미군정청 장관이였습니다.

아놀드는 1945년 12월 20일자로 이홍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검사로 임명하고 직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8.15광복후 이땅을 강점한 미군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각계 민중의 투쟁을 유혈적으로 탄압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홍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기소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했겠는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것입니다.

이같이 이홍규는 미일의 이중주구로써 동족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매국역적인 것입니다.

독초뿌리에서 독초가 돋아나듯이 이회창 역시 판사의 길을 택하고 국민탄압에 앞장서온 살인마이고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분자입니다.

이홍규의 차남인 이회창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57년 6월부터 1993년 2월까지 공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두차례의 대법관 등을 해먹으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등 역대 독재정권의 국민탄압에 적극 협력한 범죄자인 것입니다.

피로 얼룩진 이회창의 행적중에서 몇가지 사례만 짚어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가 있습니다.

이회창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시절인 1961년 한국 역사상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건의 담당판사로써 조용수사장에게 반국가단체동조혐의라는 죄명을 씌워 사형선고를 내린 살인마입니다.

≪민족일보≫는 당시 남북협상과 교류를 주장하며 평화적인 통일을 모색하던 신문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회장은 조용수사장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32살의 젊은 애국적 청년의 목숨을 앗았고 ≪민족일보≫를 폐간시키



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같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이회창이 최근에 언론사세무조사를 언론탄압으로 몰아붙이면서 언론자유를 사수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정말 뻔뻔스러운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1960년 5.16군사쿠데타이후 박정희군사정권이 종말을 고할때까지 이회창이 서울지방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으로 승진하면서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에게 사형과 중형을 선고한 죄악은 너무도 많아 다 열거할수 조차 없는 것입니다.

박정권의 종말과 함께 이회창은 마땅히 처단됐어야 했지만 1979년 12.12특범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그의 살인마적 기질을 이용하기 위해 대법원판사로 승진시켰습니다.

이회창은 전두환의 신임에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약하고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참가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으며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들에게 사형판결 등을 내리는데서 주동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982년 3월 18일 문부식, 김현장, 김은숙, 이미옥씨 등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은 부산미문화원에 불을 지르는 장거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5.18민중항쟁에 나섰던 광주시민들을 피바다에 잠굴 것을 지시한 살인원흉, 이땅을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며 온갖 전횡과 횡포를 일삼아 온 미국에 대한 징벌로써 지극히 의로운 애국투쟁이였습니다.

그러나 1983년 3월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에 대법원상고심 재판관이였던 이회창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문부식, 김현장씨에게는 사형을 김은숙, 이미옥씨 등 관련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언도하는 범죄적 만행을 또다시 감행했던 것입니다.

당시 변호인들과 재판관들 사이에 감형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회창은 원심대로 관결할 것을 끝까지 주장해서 상고는 기각되고 사형 등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회창이 ≪5, 6공시기에 대법관으로 일한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주화투쟁을 할때 홀로 고독하게 양심과 정의의 기준으로 재판을 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역사와 국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회창의 매국적 죄행은 주한미대사관과 정상적인 연계를 갖고 반민족적인 친미사대질을 자행하고 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의 채널은 한나라당의 정재문의원과 조웅규의원입니다.

정재문의원은 미국대사관이 주최하는 어지간한 모임에도 꼬박꼬박 참가해 정보를 제공하고 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회창은 이 채널을 통해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과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애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만킬로와트의 대북전력지원이 미국에 의해 보류된 것도 이회창의 역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휘변경을 논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면서 주한미군철수를 극력 반대할뿐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지지하고 한국을 그 시험장으로 내맡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회창이 얼마나 극악한 친미매국노인가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회창의 죄악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적화통일에 동조할수 있는 결과를 빚을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느니 뭐니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승공통일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의 ≪승공통일론≫은 2000년 9월 5일 연세대학교에서 수행한 특강과 같은해 10월 30일 ≪코리아타임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자유, 인권,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통일을 추구한다≫고 떠들므로써 집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또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퍼주기≫로 매도하면서 ≪상호주의≫와 ≪검증≫, ≪투명성≫ 등을 운운하며 6.15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고 ≪주적론≫을 펴면서 남북간의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철폐를 시기상조니 뭐니하고 극력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회창은 철저한 반공분자, 반통일분자입니다. 이회창일족의 죄악에 찬 행적을 말하자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회창은 일가족속들이 저지른 만고대죄를 국민앞에 사죄할 대신 오히려 대통령감투를 쓰려고 광분하고 있으니 각계 민중의 비난과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이회창은 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정계에서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이회창은 대를 이어 저지른 역적죄를 국민앞에 사죄하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할겁니다.



리회창의 ≪상호주의≫발언을 배격

조평통서기국 보도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최근 남조선의 ≪한나라당 총재≫가 북남관계 발전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13일 보도 제812호를 발표하였다.

≪한나라당 총재≫는 주제 넘게 우리 공화국의 ≪변화≫를 망상하면서 그 무슨 ≪상호주의≫를 ≪대북정책의 기본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떠벌였다.

이것은 북남관계를 위태롭게 하려는 그의 위험한 속심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고 하면서 보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공평성을 의미하는 상호주의 일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리회창이 내들고 있는 ≪대북정책≫으로서의 ≪상호주의≫는 용납할수 없다.

같은 민족내부의 북과 남사이에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사를 론의하는 때에 ≪상호주의≫를 운운하는 것부터가 원래 정치인으로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소리이다.

상호주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몰라도 같은 민족 안의 북남관계에는 있을 자리가 없다.

나라의 통일위업은 흥정물이 아니며 등가교환의 리치로는 결코 이룩할수 없다. 통일은 오직 하나의 공통된 민족적 리념에 기초한 애국의 전취물로 되여야 한다. 이처럼 신성한 통일문제를 장사군의 흥정의 대상처럼 비속화하는 리회창이야말로 정당의 당수라기보다는 보따리장사나 하는 한갖 속물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개탄스러운 것은 도대체 그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이 변화할 생각을 안하는데 북에 끌려만 다닌다고 당국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그가 주장하는 ≪상호주의≫가 결국 우리의 제도를 건드려 보자는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다시말하여 그는 ≪상호주의≫를 해도 북의 ≪변화≫를 전제로 한 ≪상호주의≫를 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발이다. 이것은 북과 남의 서로 다른 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할데 대한 쌍방의 기존합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며 우리의 존엄있는 제도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이따위 ≪상호주의≫에 기초해서는 북남대화도 할 수 없고 북남관계의 전진도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는 오직 누가 누구를 하는 심각하고 첨예한 대립과 대결만이 있을뿐이다.

리회창이 들고 나온 허울 좋은 ≪상호주의≫간판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민족내부의 단합을 가로막고 대결을 부추기는 반통일곡조이다.

이와 같은 ≪상호주의≫가 북과 남의 누구에게 통할수 있겠는가.지난 날 북남대결이 고취되였던 군사파쑈독재밑에서 그에 아부하여 출세의 길을 걸어 온 리회창이고 보면 그에게는 그런 ≪상호주의≫가 제격일지 모른다. 북남대결에 명줄을 걸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민족내부의 반목과 대결속에서 ≪대권≫을 쥐여 보려고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력사는 우리에게 도전해 나선 자들의 말로가 어떠하였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리회창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시대는 달라 졌으며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는 북남관계의 흐름은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다.

북과 남의 두 수뇌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거역하고 계속 반공화국대결을 추구한다면 그의 전도는 없다.

우리 민족은 단합과 통일을 반대해 나서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민족공동의 원칙이 있다.

우리는 ≪상호주의≫를 배격하고 북과 남이 합의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북남공동선언을 구현하기 위하여 더욱 확신성 있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대통령 된다면?

시민 · 학생 30명에게 듣는다

최근 들어 이회창 정치활동 감시단이 생기고 안티 이회창 사이트들이 생기는 등 반이회창을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학우 30명에게 ≪이회창이 대통령이 된다면≫이란 내용으로 질문을 던져보았다.

만약 이회창이 대통령이 된다면?

작년에 이루어졌던 북한과의 공동선언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회창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의 관계 아니 이루어졌던 공동선언 자체가 없던 일이 될 것 같다. 또한 김영삼 정권 때처럼 통일운동탄압이 더욱 거세어질 것 같다.

≪광운대 98 강호재≫

걱정이 많이 되요. 정치의 사리분별을 떠나서 공동선언을 상실할까봐 걱정이 되는군요. 김대중대통령이 공동선언을 이룬 것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서는 이회창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통일을 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어요.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이회창이 대통령이 된다면 독재정권시절로 돌아가는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한선희 30세 우리나라노래패≫

정치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 신문 같은 곳을 보면 건실한 정치인이라고 나오던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한희진 31세 주부≫

지금껏 이회창이 하는 발언들을 보면 민족의 이익을 벗어나고 반통일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일 이회창이 대통령이 된다면 통일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7.4 공동선언도 압력으로 막힌 것처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흐지부지되는건 아닐는지...

≪홍익대 사범대 99 강미경≫

≪한마디로 개판되겠군≫ 이회창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생각 뿐 통 일해야겠다는 뜻은 없다. 또한 통일의 암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조차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폐지보다는 유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의 염원을 담은 남북공동선언조차도 북한에 너무 끌려가는 정치를 한다고 비판한다. 만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찌되겠는가? 우리의 소원은 하나도 통일 둘도 통일인데 이회창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동국대 97 이승복≫

그 놈은 정말 나쁜 놈이여! 남한테는 군대 가라고 말을 하면서 왜 자기 자식은 면제시키는 거야?. 그런 놈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찌 되겠어?

≪김승옥 64세≫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이회창은 못 믿겠어요. 대쪽같다 대쪽같다 하지만 진실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저번 대선 때도 아들의 병역비리가 밝혀지고...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혜정 41세 주부≫

지난 6.15공동선언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통일의 물결이 일고 있다. 반통일보수세력인 이회창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6.15공동선언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온 통일의 분위기는 여전할 것이다. 단지 통일의 시기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뿐이다.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 그 의지를 아무리 꺾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총련 대의원 정모학우≫

우리 나라 정치인들은 다 똑같잖아.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회창도 똑같은 놈이잖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러니깐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이회창이가 되든 뭐시기가 되든 상관이 없지.

≪김경식 49세 회사원≫

올해 초 이회창이 우리 학교에 연설을 하러 왔었다. 그러나 우리가 막았다. 만약 이회창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은 퇴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건국대 99 양보윤≫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회창이 설령 대통령이 된다해도 그만의 독재정치, 자신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운동을 인정하도록, 민중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양대 97 김혜원≫

구세대 정권은 다 싫다. 이사람 저사람 다 해보았자 자신의 이득 챙기는 정권은 다 똑같다. 난 서울에 살기 때문에 영남권, 호남권 따지고 싶지도 않다. 새로운 얼굴이 나오길 바랄뿐이다.

≪김은자, 50세, 주부≫

솔직히 정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이회창이라...그냥 기분이 나쁘다. 그 사람의 모습속에서 뭔가 독심술이라는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조 모양, 22세, 학생≫



특별히 정치에 대해 관심은 없지만 이회창 뿐만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서라고 떠들고있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한중서, 28세, 무직≫

구조조정의 당사자인 입장에서 이회창은 경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대쪽같다고는 해도 대쪽같은 사람이 법관이나 해야지 대통령해보았자 달라질 것은 없다.

≪김모씨, 43세, 무직≫

개인적으로 이회창을 생각해 온 것은 옳은 길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역사는 짧지만 행정부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많이 거치기도 했으며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고쳐왔다고 생각한다.

≪김두현, 40세, 회사원≫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한다.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처럼 학생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총련을 없애려고 하는 행태를 할 것이 분명하기에 많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적이 명확해 지기에 더욱 단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경희대 99 민혜경≫

6.15 공동선언의 최대 걸림돌이라 생각된다. 이회창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 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자신의 대선에 걸림돌이 된다면 답방을 막겠 다고. 반통일 보수세력이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퇴보하겠지만 통일의 흐름은 지금과 같을 것이다.

≪한총련 대의원≫

분명 민족 민중 운동에 대한 탄압은 심해질 것이며 반통일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

≪홍익대 96 손보경≫

나라가 끝장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끝장날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백지화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통일이 멀어질 것이다.

≪항공대 00학번 김순식≫

반민족 정책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6.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어 통일이 오히려 퇴보될지도... 그리고 미국의 사대정책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건국대 99학번 임채훈≫

지금 현 정세보다 좋아질 것 같다. 그가 검사 출신인 만큼 맺고 끊음이 확실할 것이다. 체계적으로 잘 해 나갈 것으로 본다.

≪김동건 28세 시민≫

이회창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선거 공약은 모두 지켜낼 것 같다. 정책을 확실하게 해 나갈 것 같고, 교류는 계속해서 되어 5~10년 사이에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최현규 25세 시민≫

햇볕정책이 반공정책으로 변화 됨에 따라 통일의 길이 험난해 질 것이다. 경제적인 면은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원래 경제 기반이 잘못 잡혀 있어서 누가 되든 경제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주한미군은 이회창이 있으면 절대 안나갈 것 같다.

≪한양대 97 최남기≫

이회창이 보수세력이므로 통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듯 싶다. 통일정세에 좋은 영향은 끼치지 못할 것 같다. 경제적으로는 기본구조가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갈 것 같다. 취업난, 실직이 점차 심화 될 것이다.

≪김승기 28세≫

기득권을 위한 경제와 정치가 행해 질 것 같다. 그리고 통일은 지금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보수세력과 결탁하여 행동하는 그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그리고 미국의 입김이 더 세 질듯 싶다. 노동자, 농민에게는 점차 안 좋은 쪽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가 될 것이므로...

≪홍익대 99 장재원≫

김영삼 시절과 비슷하거나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햇볕정책에서 반공정책으로 바꿀 것이다. 자립적인 경제는 이루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M.D를 구축하게 될 듯 싶다.

≪광운대 96 김병훈≫

김대중이 잘하진 못했지만 민족적인 입장에서 통일 문제에 다가가지만 이회창은 민족적 입장이 아닌 국가의 입장에서 다가가므로 반공적인 면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일의 길은 힘들어질 듯 싶다. 이회창민이 보수 반통일 세력이므로 고립압살 정책으로 나가면서 북한과 우리의 사이를 나쁘게 만들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미국 과의 관계는 더욱 사대주의적인 입장이 나타날 것이다.

≪고려대 99 이상렬≫



한청, 한나라당사 앞 규탄집회 가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14일 낮 12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2001 민족통일대축전 음해저지 및 방북대표 석방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이 6.15공동선언 실현과 국가보안법 철폐(국보철)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홍순석(한청 의장 권한대행) 부의장은 여는 말을 통해 한나라당의 통일정책과 대북관 등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단체에서 수없이 많은 질문과 질의서, 총재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아무런 답변조차도 없다≫며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는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정당한 심판을 보여주고 또한 6.15공동선언 실현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통해 인권과 통일을 안아올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홍 부의장은 주장했다.

김선분(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연합) 부의장은 정치연설을 통해 ≪통일을 위해 열심히 일한 방북대표들을 구속시키는데 앞장선 것이 한나라당≫이라며 언제까지 미국의 앞잡이로 살 것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김선분 부의장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민족의 양심으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선영(서울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은 지난달 15일부터 한달여 동안 진행한 한나라당사 앞에서의 투쟁상황을 보고했다.

최선영 부의장은 처음 1인 시위로 시작했으나 통일연대, 서울연합, 민자통, 범민련 남측본부 등의 참여로 하루 20여명의 사람들이 이 투쟁에 참여해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려는 반통일수구세력을 규탄하고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그간 투쟁을 평가했다.

또한 8.15 민족통일대축전 이후 ≪민민세력≫이 수구반통일세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이번 투쟁을 통해 공동의 목적으로 연대연합투쟁을 했으며 또 투쟁을 확산시켜 낸 것이 성과라고 정리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반통일세력들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민족민주연합의 신건수 의장은 청년이 앞장서서, 내년 정치심판에서 수구보수세력이 국민들의 근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자고 주장하는 정치연설을 했다.

마지막으로 유선희(구로청년회) 회장은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전민족의 행보를 가로막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촉구대회를 마쳤다.

한청은 오늘 집회를 통해 한달여 동안 진행해온 한나라당사 앞 규탄집회를 마무리하고 이후 12월 1일에 있는 국보철 투쟁에 집중할 예정이며 양심수 석방과 국보철을 위한 YMCA 앞 캠페인에도 적극 결합할 예정이라고 홍순석 부의장은 밝혔다.

한편 한청은 지난 12일 한나라당 앞으로 한나라당의 통일정책, 대북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14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에 대한 탄압규탄

북측본부가 성명



≪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가 남측본부성원들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행위를 규탄하여 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요즘 남조선당국은 지난 8월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여 범민련강령과 규약을 수정하는 모임을 가졌다는 리유로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리고 있다.

성명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발휘되고 그 리행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이 활발해 지고 있는 때에 감행되는 이러한 파쑈적폭거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 될수 없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대표들과 함께 당국의 승인하에 평양에 와서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으며 북과 해외의 범민련 관계자들과 상봉하고 그 기회에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반영하여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것은 온 겨레가 지지하고 환영하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새 세기에 기어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이룩하려는 애국적인 소행으로서 민족의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남측대표들이 김포비행장에 도착하기 바쁘게 강제련행하여 ≪조사≫니 뭐니 하면서 박해를 가해 오던 남조선파쑈당국은 끝끝내 그들에 대한 공판을 벌려 놓았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에 대한 남조선파쑈당국의 탄압만행을 6.15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배신으로, 범민련조직에 대한 말살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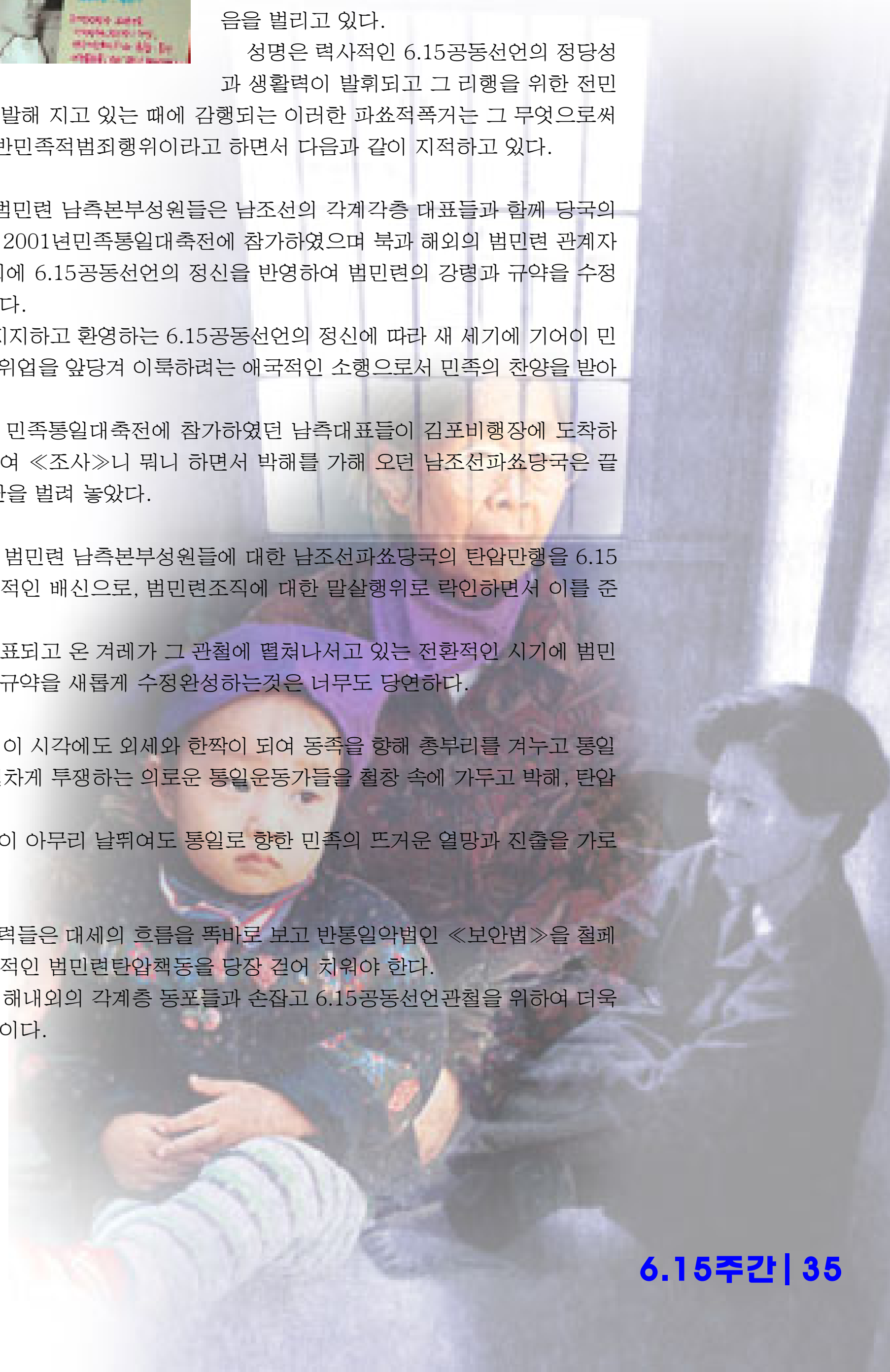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온 겨레가 그 관철에 떨쳐나서고 있는 전환적인 시기에 범민련이 그에 맞게 강령, 규약을 새롭게 수정완성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외세와 한짝이 되여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통일애국의 선봉에 서서 힘차게 투쟁하는 의로운 통일운동가들을 철창 속에 가두고 박해,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반통일세력이 아무리 날뛰여도 통일로 향한 민족의 뜨거운 열망과 진출을 가로막을수 없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범민련탄압책동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해내외의 각계층 동포들과 손잡고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것이다.



범청학련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이전 독재≪정권≫들의 행적을 답습하는 파쑈행위



≪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이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구속한것과 관련하여 7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담화는 다음과 같다.

얼마전 남조선파쑈당국은 지난 8월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비롯한 관계 성원 6명을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에 앞서 남조선파쑈당국은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과 대구, 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련합 전 의장, 건국대학교와 창원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많은 대학생들을 ≪보안법위반죄≫로 몰아 철창속으로 끌어가는 한편 곳곳에 수사망을 펼치고 수백명의 ≪한총련≫대의원들을 검거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파쑈적인 ≪보안법≫을 휘둘러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의 의로운 활동에 칼질하는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온 민족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묻건대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여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재확인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갈 의지를 담아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개정안을 토의한 것이 무슨 ≪죄≫로 되며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의로운 활동이 어떻게 ≪범죄≫시 될 수 있단말인가.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비롯한 애국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을 ≪리적≫으로 몰아 탄압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7천만 겨레의 통일열의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통일운동단체들의 련대와 단합을 가로막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행위이다.

범청학련 북측본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탄압만행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는 전 민족의 한결 같은 요구를 짓밟는 반역행위로, 이전 독재≪정권≫들의 피 비린 행적을 그대로 답습하는 파쑈행위로 락인하면서 공화국북반부 전체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한다.

죄는 지은대로 가기 마련이다.

남조선당국은 날로 높아 가는 겨레의 통일의지를 똑똑히 보고 낡은 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당장 철폐하여야 하며 조국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의로운 활동을 벌리고 있는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부당하게 체포구속한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성원들을 비롯한 모든 통일애국인사들을 지체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범청학련 북측본부는 해내외 모든 동포들과 청년학생들에게 남조선에서의 ≪보안법≫철폐와 구속된 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설것을 호소한다.

≪보안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철폐하라

민화협 대변인 담화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당국이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들을 강제련행하고 그들을 ≪보안법≫에 걸어 처형하려는것과 관련하여 8일 이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들을 강제련행하고 그 무슨 ≪조사≫놀음을 벌려 오던 남조선당국은 이번에 끝끝내 그들을 ≪보안법≫에 걸어 처형하려는 파쑈적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평양행사에 참가하여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통일운동을 벌려 나갈 대책들을 협의하고 민족의 넋이 깃든 백두산과 평양시내의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자기의 소감을 밝힌데 대해 문제시하는것은 달아 오른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대결상태에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이다.

이미 밝혀 진바와 같이 우리와 남조선의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가 공동으로 성사시킨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대표들이 참가한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의로운 소행으로서 결코 죄로 될수 없다.

죄를 따진다면 그들의 통일행사참가에 대해 처음부터 ≪조건부 승인≫이니 뭐니 하며 고의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합법적인 통일활동을 벌리고 돌아 간 통일애국인사들을 박해하고 탄압해 나선 남조선당국에 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반통일적책동으로 말미암아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북과 남의 여러 민간단체들이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하여 합의한 문제들이 하나도 리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그 책임을 느끼고 반성할 대신 도리여 이미 존재명분을 상실한 ≪보안법≫을 휘둘러 대며 통일애국인사들을 처형하려 하고 있는것은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민족화해협의회는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남조선파쑈당국의 탄압만행을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으로,민족의 통일운동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책동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향해 나가는 오늘의 시대에 와서 랭전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다.

더우기 그러한 악법을 휘둘러 대며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저들의 통치위기를 수습해 보려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야말로 지난 날 ≪보안법≫에 명줄을 걸고 권력을 유지하던 선행파쑈독재자들의 통치방식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6.15북남공동선언을 귀중히 여긴다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앞길에 장애로 되는 ≪보안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철폐하고 통일운동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고무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반통일세력의 온갖 방해책동을 박차고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공안당국의 한총련탄압책동과 관련한 청년학생들의 반영



통일열기로 끓어번지는 열혈청춘들의 애국의 마음을 얼궈버리려는 듯 한총련 교살한파가 무섭게 일고 있습니다. 그 한파속에 얼마전에는 전 부산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전모씨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서슬 푸른 칼날을 휘두르며 우리 청년학생들의 살점을 아프게 에이는 한총련교살한파의 광란을 보며 이땅의 열혈청춘들을 더욱 드세찬 투쟁의 열풍으로 심장을 달구며 다짐하는 의지의 목소리입니다.

부산대 자연과학대학 강모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형이 감옥으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산대 전체학생들은 분격을 금할수 없었다. 결코 그가 이전 부산대 학생회간부였기 때문만이 아니다. 감옥이 어떤 곳인가. 나라앞에 해되는 일을 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닌가. 전형은 죄될 일을 한 것이 없다. 우리 부산대생들은 그를 너무도 잘알고 있다. 깨끗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불굴의 실천으로 우리 모두에게 투쟁의 넋을 심어주던 그가 어떻게 죄인취급을 받을수 있단 말인가. 그가 체포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에 접한 우리 부산대생들이 경찰서앞에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 건 그 때문이다. 경찰당국은 전형을 당장 석방하라.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청년학생들은 더욱 과감한 투쟁으로 애국학우를 우리의 힘으로 구출해 낼 것이다.≫

서울대 최모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열주의세력의 한총련탄압책동은 민중의 고조되는 통일열기를 막아보려는 것과 정의의 길에 나선 한총련 백만학우들에 대한 두려움의 반증이다. 한총련이 탄압받고 있는 건 너무도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는 왜곡된 현실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반통일세력이 아무리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한총련을 탄압할지라도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청년학생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갈길은 갈 것이다. 정명기 이전 의장님의 얘기가 떠오른다. ≪한총련은 달구면 달굴수록 더욱 시퍼렇게 날이 서는 화살이 될 것이다≫.≫

학생운동가 김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민족의 살길을 찾는 것이 이적행위라면 기꺼이 누구든지 이적행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총련의 활동을 ≪이적≫행위가 아니라 ≪이족≫행위로 된다고 말한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황선대변인이 우리 청년학생들앞에서 언제나 하던 얘기다. 지금도 그는 이런 불굴의 의지로 반통일세력들을 절규하며 힘차게 싸우고 있다. 그만이 아닌 감옥에 갇힌 애국학우들 모두가 그렇게 싸우고 있다. 그들은 옥중투쟁으로 우리 백만학우들을 고무하고 있다.

공안당국이 운동권핵심들을 구속함으로써 한총련을 근원적으로 말살하려 하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작태인가. 공안당국은 우리 청년학생들의 거세찬 투쟁열풍에 휘말려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전에 한총련탄압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한총련의 위업은 정의의 위업이며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난관을 기쁨으로, **의 계기로 받아안으며 자주민주통일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대중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 중지해야

구국전선 459호, 주체90(2001)년 11월 11일



대중운동단체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

10월초 만기출소예정이던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재수감한 것은 대중운동단체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8월15일 평양에서 열렸던 민족통일대축제에 참가했던 대중운동 및 통일운동 관계자들을 ≪국보법≫에 걸어 구속했다.

최근에는 교육개선을 요구하는 교직원들의 집회를 문제삼아 전교조탄압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의 요구와 의사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민주노총이나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 대중운동단체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의 정당한 활동과 투쟁은 애국애족적인 것으로 해서 각계민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광범위한 대중을 망라하고 있는 대중운동단체들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당국에 있어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민심은 이미 경제와 민생, 통일, 외교 등 당국의 국정실책에 등을 돌린지 오래다.

그런데로부터 당국은 대중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해 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삶의 권리와 노동조건의 보장,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요구하는 대중운동단체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국의 부당한 처사는 각계민중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대중운동단체들의 반정부투쟁을 한층 더 고양시키고 있다.

민주노총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참여연대 등 30여개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단위원장석방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석방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도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려 하고 있다.

대중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으로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탄압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당국의 파멸만 촉진시킬 뿐이다.

당국은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대중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겨울의 길목, 거리에 나선 노동자

[노동자대회] ≪국민의 정부 더이상 못믿겠다≫

노동계가 동투(冬鬪)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1월 11일 1만 5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 공원에서 2001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60만 조합원 총투표

마포구 공덕동 로타리에서 여의도 공원까지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단병호 석방 · 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제 도입 · 공기업 사유화 중단≫.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60만 조합원을 상대로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총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펼치는 노동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첫 시도인 이번 투표는 1800여 개 단위 사업장 별로 일제히 진행되며 이를 토대로 이후 대정부 투쟁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 추진에 반발하며 철도노조 등 6개 국가기간산업노조들이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25일 양대 노총 공공부분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단계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도 임금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1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문을 통해 ≪현 정부가 올해 들어 일주일에 다섯 명 꼴인 223명을 구속했다≫며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규 노동자들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구조조정과 공기업 사유화 중단 △교수 · 공무원 노조 보장 △7차 교육과정 철폐와 교육재정 확보 △건강보험 재정 분리 반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저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장애인, 실업자, 교수도 모두 노동자≫

여의도 공원으로 향하는 2001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의 선두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남반구 노조연대회의에 참가한 15개국 30여 명 노총대표들이 서 있었다. 이들은 1만500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철의 노동자≫를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불렀다.

실업연대와 이주노동자, 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은 이날 대회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공덕동 로타리에서 여의도 공원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특히 장애인이동권연대는 휠체어를 타고 사다리를 목에 건 상태로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를 외치며 1시간 넘게 행진을 벌였다.

한편 10일 출범식을 가진 교수노조는 교수이기 이전에 일하는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깃발을 앞세우고 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2001년 노동자대회는 지난 대회 때와는 달리 마포구 공덕동에서 시작해 여의도 공원까지 행진을 먼저 진행하고 본 대회를 뒤에 배치했다. 본 대회 후 행진을 진행했던 과거 대회 때와는 사뭇 달라진 방식.

이 때문에 전날 전야제에 참석했던 조합원들은 오전 연맹별로 서울시내 20여개 지역에서 대국민 홍보물을 통해 거리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러한 대회 진행은 지방에서 상경한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귀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라는 측면과 경찰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예정 시간인 오후 3시보다 본 대회가 1시간 이상 지체되긴 했지만 2001년 노동자대회는 오후 5시 30분쯤 모두 정리됐다.

이날 집회는 대체로 평화적인 가운데 진행됐다. 그러나 오후 4시 20분쯤 여의도 공원 입구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이 과정에서 서울 의류업 노조 교육국장 남병준(34) 씨가 실신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목격한 심 아무개 씨는 ≪경찰에 밀리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그 상태에서 경찰에 밟혀 실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회 지휘에 나섰던 최승원 영등포 경찰서장은 ≪학생들이 도로를 점거해서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대회에 58개 중대 70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박수원/이종호 기자 won@ohmynews.com

노동자대회 최초로 ≪통일마당≫ 열려

≪노동자가 반미 반전투쟁에 앞장서야≫



≪2001 전국노동자대회(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통일마당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10일 오후 7시 숭실대학교에서 진행된 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통일마당을 열어 노동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통일마당은 전야제 행사 전에 열린 주제별 마당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주최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자주민보, 민간인학살 특별법제정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민족21등이 참여해 ≪반전 반미 평화실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통일마당에는 2001남북민간교류행사 사진전, 미군기지 반환 투쟁 사진전, 미군에 의한 피해사례 사진전, 구속자 석방과 모금운동, 서적판매가 상설됐으며 희망새의 게릴라 공연도 있어 보는 이들을 즐겁게 했다.

투쟁조끼를 입은 모습으로 사진 전시를 꼼꼼히 살펴보던 서동완(금속연맹 대우자동차 군산지부) 지부장은 ≪회사가 군산에 있어 미군문제는 평소 접하는 문제로 통일과 미군문제에 대해서 다른 노동자보다 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좀더 포괄적으로 접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며 통일마당이 열리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서동완 지부장은 민주노총이 대의원 대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계획으로 ≪전쟁반대 평화실현 반미자주화투쟁≫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하부조직까지 이러한 결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 방법까지 논의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독운수에서 일한다는 허세욱씨는 ≪교과서를 통해 잘못 알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미국의 본질을 알고 있는 지금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하고는 만약 이를 묵과한다면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하루의 때거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지만 반전반미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통일마당을 개설한 것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야제를 참석하기 위해 숭실대를 찾은 노동자들은 통일마당을 지나가며 생존권문제와 더불어 반전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이 함께 이뤄져야 할 내용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은 통일마당에 대해 ≪하반기 투쟁계획이라는 측면과 함께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노동자들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투영돼 나온 것으로 전야제를 참석한 노동자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번쯤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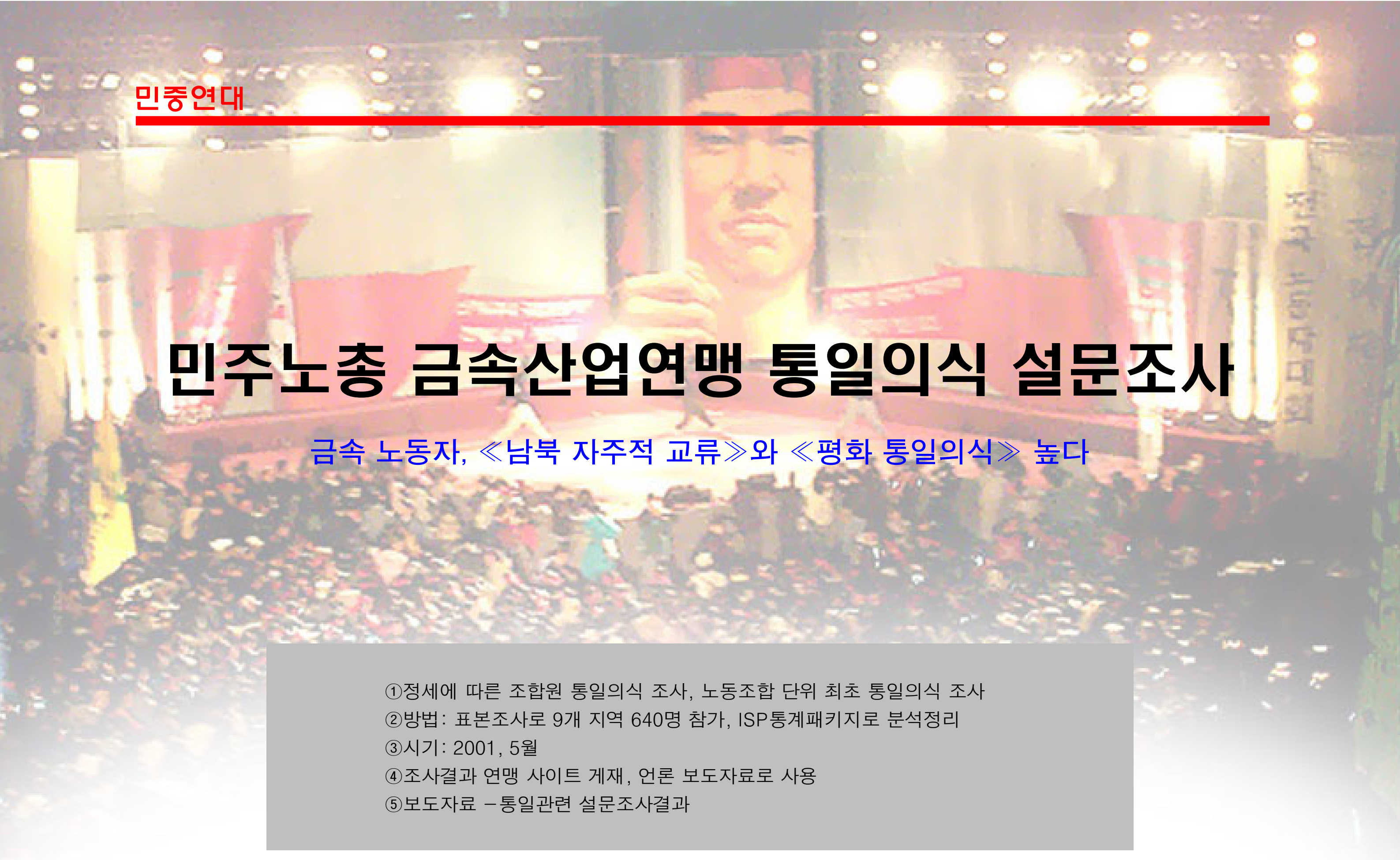
김영제 통일국장은 이어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노동자들의 문제를 그간 정말 쉽게 놓쳐왔다고 자평하면서 민주노총 전체 지도부 안에서도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과제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이후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이 반전 평화와 반미자주화투쟁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통일마당을 개설한 의미는 크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통일문제를 생존권투쟁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반전반미≫ 민족자주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중심에 서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숭실대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전야제는 운동장을 가득 메운 1만여 전국의 노동자들이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열린 각 마당에 참석하는 등 밤새 열기로 뜨거웠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11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통일의식 설문조사

금속 노동자, ≪남북 자주적 교류≫와 ≪평화 통일의식≫ 높다

①정세에 따른 조합원 통일의식 조사, 노동조합 단위 최초 통일의식 조사
②방법: 표본조사로 9개 지역 640명 참가, ISP통계패키지로 분석정리
③시기: 2001, 5월
④조사결과 연맹 사이트 게재, 언론 보도자료로 사용
⑤보도자료 –통일관련 설문조사결과

1. 금속산업연맹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급변하는 통일정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설문조사 결과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응답이 67.3%였으며, 6.15선언 1항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합의에 대해서는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3. 2001년 4월 25일부터 2001년 5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금속산업연맹 소식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9개 지역, 61개 사업장에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수거된 설문지646부를 대상으로 ISP통계 처리 패키지를 사용해 분석했습니다.

4.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평가 ▲북한경제지원 ▲국가보안법 개폐 ▲남은 장기수 송환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전략미사일 문제 ▲민주노총 통일사업 평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선 과제 ▲주한미군의 장래 거취 등을 물어 노동자의 통일관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남북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답방에 대하여≫는 84.8%가 환영한다고 응답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87.9%가 통일걸림돌, 인권억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경제지원 문제≫는 조건없이 지원 53%, 상호주의로 지원 35%, 지원반대 12%로 다수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남은 장기수 33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송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88.6%였습니다. 남북노동자 통일축구, 금강산 통일토론회 등 민주노총의 통일사업에 대해서는 79.6%가 훌륭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의식조사도 병행했는데,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하여 85.2%가 대북강경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미국의 전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냉전대결 음모(47.8%), 무기개발 억제해야(42.1%)한다고 응답해 90%가 반대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장본인은 미국과 초국적자본이라는 응답이 71%였습니다. 나아가 노동자 10명중 8명은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즉각 44.3%, 단계적철수 39.9%)고 응답해 미국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식이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이번 통일의식 설문조사의 의의는 민간통일운동의 한주체로 나서고 있는 노동자(조합원)

설문조사로는 처음 실시한 것으로, 참가한 지역과 사업장 수로 볼 때, 충분히 자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 앞에서 폭발한 농민의 분노

농민 1만5천여명 격렬시위 ≪살맛 안나 올라왔다≫

≪우리 보구 굶어 죽으란 말여?≫

≪도대체 우리 보구 굶어 죽어라는 소리나 같지 않냐 말야. 쌀 한 가마에 14만원도 채 안가. 빚도 3000만원이 넘었고...살 맛이 안나 올라왔어. 소리나 한번 질러 보려고.≫

1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난 김종구(65. 전북 정읍)씨는 답답한 마음에 담배 하나를 또 다시 물어댔다. 연거푸 다섯 개비째다.

옆에 있던 75세의 전상면 할아버지는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굴 위한 나라여? 대통령이 뭐하러 있고 국회는 머하러 있는거여?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거여. 기자양반? 그냥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여. 그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3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일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주최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전국 1만5000여명의 농민들과 1만여 경찰 병력이 대치와 충돌을 반복하면서 수십명의 농민, 경찰 병력이 부상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어 강원과 경남, 전남 등 전국에 올라와 여의도 집회에 합류하지 못한 농민들은 서울 청량리와 서초동, 서대문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쌀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쟁터 방불, 여의도 농민집회

오후 4시께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열린 농민대회를 마친 농민 1만5000여명은 ≪쌀시장 개방 반대, WTO반대≫라는 플래카드와 차량을 앞세워 국회쪽으로 이동했다.

4시 30분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150여미터 전방에 여경으로 배치된 폴리스라인에서 간단한 몸싸움을 벌인 농민들은 국회 앞 10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쌀값 하나 보상 못하는 국회는 해체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각 지역 농민회 소속 농민들끼리 집회를 열었다.

4시 40분께 순창과 임실 등 일부 농민회 소속 1000여명의 농민들이 한나라 당사 앞으로 이동하면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충돌했다. 깃발과 대나무 등으로 경찰 병력과 실랑이를 벌이던 일부 농민들이 한나라당 경찰 병력 저지선을 뚫고 당사 정문 앞까지 진출하자 추가로 투입된 경찰 병력과 심한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사 옆 대형 유리창 일부가 깨졌으며 농민회 소속 트럭과 자가용이 전복됐고 충남 보령의 한 농민을 비롯 농민과 경찰 수십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5시께 국회로 향하려던 5000여명의 농민들도 경찰과 심한 몸싸움과 충돌을 빚었으며 이후 병력을 증원한 경찰력의 국회 앞 농민들에 대한 강제 해산 작전이 시작됐다.

농민 경찰 취재기자 등 부상자 속출, 의사당 앞 소나무 화재

5시께 1000여명의 농민들이 민주당사 앞으로 이동하면서 국회 앞 농민 시위는 국회 진출로와 민주당, 한나라당사 앞 등 세군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국회쪽으로 향하던 농민들은 트럭을 앞세워 경찰 저지선을 뚫기 위해 경찰과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일부 경찰력과 농민들이 부상을 당했다.

5시 10분께 경찰 병력의 본격적인 시위 진압 작전이 시작됐고 한나라당사 앞과 국회쪽 농민들 일부가 경찰에 연행됐으며 농민들은 여의도쪽으로 점차 밀렸다.

이어 국회 앞 도로 한가운데 심어져 있는 소나무 수십그루에 불이 붙었으며 불길이 치솟았다. 이어 서울 영등포 소속 소방차와 구급차 5~6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국회 앞 도로로 들어왔다. 119 구급차에 태워진 20여명의 부상 농민들은 인근 여의도 성모 병원으로 후송됐다.

5시 40분께 시위 진압용 노란색 대형 물대포차가 집회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물대포차가 집회 현장으로 투입되자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으며 차량 주변에서 농민과 경찰의 충돌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모 신문 여기자가 농민쪽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돌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6시께 물대포차는 후방으로 나왔다.

신임 서울경찰청장 현장 지휘... 한나라당 의원들 항의 전화도

한편 오후 5시 25분께 국회 정문 쪽에 신임 이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탄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가 오마이뉴스 취재진에 띄였다. 차에서 한차례 내려 시위 현장을 지켜본 이 청장은 진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차에 올랐다.

이 청장은 이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이모 의원 등으로부터 농민들의 한나라당 앞 집회에 대한 항의성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 50분께 이 청장을 태운 그랜저 승용차가 현장에서 사라졌다.

농민집회, 쌀 생산비 보장, WTO, 쌀 수입 반대 요구

이에 앞서 전국에서 400여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서울로 올라온 1만 5000여명의 농민들은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2001년 전국 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농업개방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시장 개방 반대, 한미 칠레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쌀 생산비 보장을 요구했다.



김종철/노순택 기자 jcstar21@ohmynews.co
2001/11/13 ⓒ 2001 OhmyNews

한나라당사 앞에서 폭발한 농심

여의도 농민대회를 마치고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던 전농 소속 1만 5천여명은 국회의사당 진입로(국민은행 앞)에 경찰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자 잠시 마찰을 벌이다 한나라당사 앞으로 지나는 순간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다.

이미 경찰병력이 배치되있던 한나라당사 앞에 모인 농민들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북지원을 반대하고 대권잡기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원성을 높이면서 한나라당사로 밀고 들어갔다.



경찰과 농민들의 격렬한 몸싸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당사앞에 세워둔 베르나승용차가 뒤집어져 파손당하고 농민들의 방송차량 또한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농민들의 돌팔매에 한나라당사 현관 진입로 유리창이 파손되었으며 몸싸움 과정에서 일부 농민이 경찰에 연행되고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나라당 직원들은 건물 안에서 농민들의 분노를 줄곧 지켜보았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벌어진 격렬한 몸싸움으로 인해 약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 근처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7천여 명의 병력을 배치한 경찰은 농민들과의 몸싸움 과정을 비디오와 디지털 카메라로 채증하다가 농민들의 돌팔매를 맞기도 하였다.

김병태 2001-11-13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사이버 검열 반대 성명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을 옮겼다는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들인다면, 누가 오염된 정치를 바꾸겠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겠는가?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가 8일 디지털말 웹마스터로 재직중인 이대성씨를 비롯한 11명의 시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및 입건하고, 이에 대한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 난무,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은 네티즌 스스로 정화해 건강한 인터넷 소통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전한 사이버 통신질서 확립≫이란 미명하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검찰의 사이버 문화 탄압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으로 다음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가운데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씨의 사건은 검찰이

과잉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9월 21일 디지털말 게시판에 오른 작성자 불명의 ≪[펌]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필독)≫ 이라는 제목의 글을 ≪다음 카페≫ ≪웃음동≫에 단 한 차례 퍼옮긴 것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속된 이씨는 ≪이회창 총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카페에 옮긴 것뿐이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씨는 디지털말 웹마스터로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자료를 보면 처리기준에 ≪인터넷상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상세히 게재하고 악의적인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심하게 비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라고 구속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등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넘었으나 비방성이 약하고 호기심으로 비방글을 올린 경우 등 정상참작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도, 이씨는 ≪호기심으로 비방글을 올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씨를 구속한 것은 검찰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것만 봐도 이씨의 경우,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의혹을 사고도 충분한 것이다.

특히 이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태인데도, 검찰이 인터넷언론사에 근무하는 이씨를 구속한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난 일이 아닐 수없다.

둘째 구속된 이씨가 옮긴 글은 이미 수많은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네티즌들이 그 글을 읽은 상태다. 그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맞는 얘기도 있고, 아닌 얘기도 있다≫는 반응이다. 그렇기에 유독 이씨만을 구속한 것은 형평선에 맞지 않은 것이다.

상식을 갖추고 있는 네티즌들이라면 정치인의 행적에 관한 사실 여부를 능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회창 총재에 대한 비방게시물이 정말로 이 총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내용이라면, 그 글에 대한 사법적 처리여부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네티즌들의 자유여론과 정보소통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게시물을 옮겼을 뿐인 이씨를 구속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나서서 인터넷 여론을 검열하고,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보소통행위를 원천차단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이씨를 구속한 것은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셋째 이번 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공간은 유례없이 뜨거운 열기가 넘쳐나고 있다. 대선후보에 대한 의견개진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소통되고 있다. 이는 전자정치의 활성화를 가져다주고, 네티즌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사이버상의 정치 토론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억누를 일이 아니라, 바람직한 토론과 정보소통을 통해 유권자인 네티즌들이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가능하게 해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씨 구속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정치에 대한 사이버 토론과 논쟁을 위축시키고, 전자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게 할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넷째 이씨를 구속한 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지난해 제정될 당시에 ≪통신질서확립법≫으로 불릴 정도로 사이버 여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조항≫

과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강제화되어 있다.

당시에 민언련, 진보넷, 문화연대, 민변, 학계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법을 ≪온라인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하면서 반대운동을 펼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옮겼다는 이유로 이씨를 구속한 것은 참으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비판글을 옮겼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지 말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7일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당했다고 한다. 검찰은 8일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씨를 기소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우리는 이씨를 구속수감한 채 재판을 준비 중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네티즌들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사이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이버 검열을 자행하는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담당검사는 과잉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2. 검찰은 과잉수사로 구속된 이씨를 즉각 석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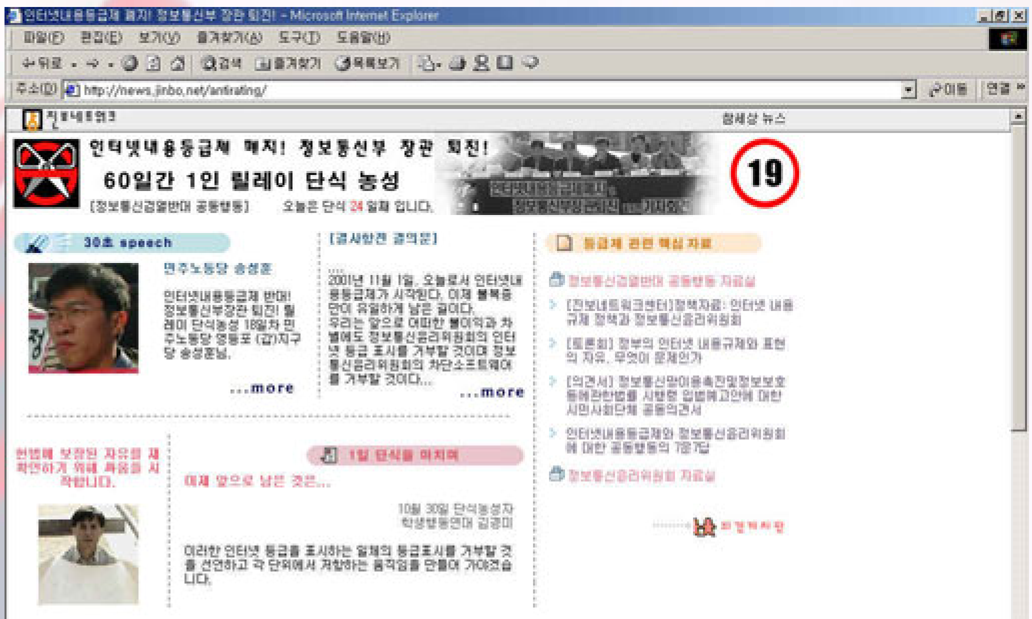
3.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일상적인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법률적 근거인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4.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인터넷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2001년 11월 12일

(사)민언련,
이대성 석방을 위한 대책위,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 60일간 1인 릴레이 단식농성



진보정당과 2002년 양대선거 토론회



지난 11월 14일 오후 8시 기독교회관(신관)에서는 ≪진보정당과 2002년 양대선거≫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민주노동당 재창당준비위원회,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전국연합진보정당 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 진보정당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전국연합 이천재 공동의장,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여 다가오는 2002년 양대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날 토론은 민주노총 김태일 정치위원장의 사회로 정성희(민주노동당), 정대연(전국연합 정책위원장) 2인의 기조발제가 진행되었고 한국노총 대외협력부장 이정식씨,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서주원씨, 자치연대 공동대표 김두관(남해군수), 전빈연 사무처장 최인기씨, 한총련에서 1인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1발제를 맡았던 정성희(민주노동당 재창당추진위원회 상임위원)은 ≪2002년 양대선거와 민주노동당의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민주노동당의 당면과제로 조직적 대중적 기반의 강화, 당의 외연 확대와 당명개정 검토, 당의 독자적인 정치활동 강화를 역설하였다.

제2발제는 정대연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이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치닫는 길목에서 치르는 2002년 양대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이가≫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를 진행하였다. 지금 시기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하고 민족민주운동 시민사회운동진영의 공동대응 실현과 이를 위해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민족민주운동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연대틀을 시급히 꾸리고 범국민적인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자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2002년 대선에서는 민족민주운동-시민사회운동진영의 단일후보로 결집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서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녹색이념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선거에의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환경운동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지방자치 선거에의 참여는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한국노총의 2002년 양대선거방침은 2002년 2월 노총위원장 선거이후 정치 방침이 공식 천명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독자정당의 경우 기존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정적 폐쇄적 이미지가 잔존한다고 보고 민주노동당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총련에서는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정치세력화에서 가지는 진보정당의 의의와 한총련의 역할≫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한총련은 진보정당이 한국사회 변혁운동에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자기조직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진보정당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총련 내에 진보정당 연구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학생대중이 진보정당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사업한다고 밝히고 민주노동당, 학생운동 조직들과 토론회, 강연회, 간담회 등을 전단위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민 2001-11-15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노골화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6일

사회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초점 오늘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노골화되고 있는 해외침략책동에 대해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달 29일 이른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이 일본 참의원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지금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우리 나라를 비롯해 아시아나라들이 모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법안의 내용부터 얘기됐으면 합니다.

김현규 : 이번에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된 이른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은 지난 9월 11일에 있은 미국에서의 기습공격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에 비전투적인 병참지원을 주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법안은 테러전쟁에 참전한 미국에 무기탄약수송과 연료보급은 물론 미군 조난자 수색 및 구조활동도 할수 있도록 규정된 이른바 ≪테러대책지원법≫안입니다.

일본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5일만에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시켜 법으로 성립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일본은 군대보유와 전쟁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를 사실상 사문화했고 일본 ≪자위대≫를 옭아맸던 고삐도 풀려져 제한이 없이 해외에 파견될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이른바 동맹국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자위대무력을 해외군사작전에 전면 출동시킬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자 : 일본은 지난 10년간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과 ≪주변사태법≫ 등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해외로 크게 넓혀왔지만 이번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의 통과로 그 활동범위를 사실상 제한없이 넓혔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고 봐요. 이것은 우리 나라를 비롯해 아시아나라들은 물론 국제사회계에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죠.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으로써 다시는 그런 전철를 밟지 말아야 합니다. 전후 일본에서 채택된 ≪평화헌법≫은 일본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패망의 쓴맛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또다시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번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느니 뭐니하면서 저들의 범죄적 목적을 감추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반테러전쟁에 나선 미군전투함들을 위해 ***을 파견하고 이달중으로 1,000명 규모의 병력과 자위대함선들을 인도양에 파견하기로 한다 어쩐다하며 그것이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이건 눈감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는 현대전에서 후방지원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병참지원을 구실로 ≪자위대≫ 함선들을 작전지역에 파견해 정보수집활동을 진행하면서 전투중인 미군에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전쟁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통할수 없는 궤변이 아닙니까.

사회자 : 그렇죠. 일본자위대가 해외에 나가는 건 남의 군사작전을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그 전투작전에 참가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일본군국주의집단은 해외에서 ≪자위대≫의 무기사용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 일본 방위청 장관 나카타니는 참의원 관계상 위원회의 연합심사회의에서 해외에 파견되는 ≪자위대≫는 로켓포도 휴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른바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해외에 파견되는 ≪자위대≫는 소총이나 기관총밖에 휴대하지 않았고 그나마 무기사용에는 엄격한 제한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지배층은 무기사용기준을 크게 완화시켰을뿐 아니라 분쟁지역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맞먹는 무기를 ≪자위대≫가 휴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할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일본정부는 이달 중순께 이지스함 등 5척의 함선들을 인도양에 파견하려 하고 있는 건 ≪자위대≫의 무기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사일을 장비한 고성능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뿐입니다. 일본이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죠.

사회자 : 그렇죠. 일본당국자들은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의 기본활동에 참가할수 없게 규정한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뜯어 고칠 것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기본활동참가≫를 법제화하려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파견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려 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자위대≫의 해외작전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무기사용기준을 대폭완화하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김현규 : 그것은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정치군사대국의 지위를 차지하자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는 정치대국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일본지배층의 야심입니다. 지난 91년 만전쟁때 일본은 미국의 전쟁비용을 제일 많이 부담했지만 정치대국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직접 무력을 파견해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였다고 보면서 일본지배층은 이번에 미국에 이른바 반테러전쟁을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만전쟁때의 **을 하려 한 겁니다. 결국 이른 통해 일본은 군사대국의 지위를 시위하고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겁니다. 국제무대에서 정치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패권쟁탈에 나서는 것은 일본의 속셈이 아닙니까.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무기사용권한의 확대는 이것을 겨냥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회자 : 이같은 사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새 세기에 미국의 비호지지아래 해외침략의 길로 본격적으로 내달리려 한다는 걸 뚜렷이 보여주는데요. 일본 당국자들의 해외파병합법화책동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물론 일본내에서도 지탄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주요 야당인 일본 민주당대표 하토야마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정부와 집권당들의 자살행위라면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의 국회통과를 비난했고 일본 공산당 ***위원장 **는 정부는 군대를 파견해 전쟁에 합세하기 위한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길로 나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민당 지도자 도이는 돌이킬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회자 :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 매우 엄중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는데요. 각계 우리 민중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에 응당 경각심을 높이고 그들의 해외침략, 특히 한반도재침책동을 짓부수기 위해 결연히 투쟁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네,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단결 그 어제와 오늘

손학모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6일~8일

지구촌에 나라와 민족이 형성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할것없이 다 자기 민중, 자기 민족의 단결을 바랬죠. 하지만 바란다고 해서, 강압으로 조직화한다고 해서 단결이 이루어지는게 아니죠. 민중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자면 단결의 구심, 다시말해서 민중민족이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는 위대한 영도자를 모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의 역사가 그걸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족사연구회 손학모씨의 글을 김혜정씨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패한다, 지난 한 세기의 민족사가 이 천리를 새겨주었다. 21세기를 통일시대로 빛내이려는 7천만 겨레의 의지도 대단합을 통해서만 성취될수 있음을 오늘의 현실이 입증하고 있다.

남북이 손잡고 통일의 대문을 열어가는 대단합의 도도한 흐름을 보며 위인을 모셔 단결해온 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1

민족의 단결을 떠나서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실현하고 민족번영을 위한 대업을 이룩할수 없다. 민족의 단결은 그 구심이 있을 때에만 실현할수 있다.

김일성주석은 우리 민족 대단합의 시조이시다. **김일성**주석을 모셔 우리 민족은 진정한 민족대단합의 첫 자국을 찍었다. 주석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뭉쳤기에 수난과 오욕의 역사를 끝장내고 존엄과 영광의 새 역사를 열수 있었다.

김일성주석은 민족을 위한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단결을 위해 온갖 노고를 다하셨다.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신 주석이시다.

김일성주석의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을 뭉치게 하는 대단합 경륜이다.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으로 일관된 역사상 처음 보는 광폭의 대단합사상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수 있는 주석의 민족대단결경륜이 있어 겨레는 하나로 뭉쳤다.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대전의 나날 각계각층의 애국적 역량은 **김일성**주석을 우러러 반일광복성전에 나섰다.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종교인, 자본가들도 백두산의 천출 위인을 따라 전민항쟁에 나섰고 마침내 조국광복만세의 환호성이 터졌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광복후에도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민족단합의 구호를 제시하시어 온 민족을 부강조국건설과 통일성업에로 부르셨다.

1948년 4월에 열렸던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과 광폭의 도량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남북연석회의는 50여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과시한 대회합으로 청사에 길이 빛나고 있다. 평양의 대동강변에 세워진 통일전선탑과 더불어 해내외 온 민족의 단결로 통일을 이루자는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주석께서는 민족대단결실현을 위해 어느 하루도 심려하지 않으신 날이 없고 어느 한때도 편히 쉬신 적이 없다. 언제나 하나의 통일조국노선을 견지하시고 대단결로 민족분열책동을 저지파탄시켜 오신 주석이시다. 격폐상태에 있던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상의 문도 열어 놓으시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신 주석, 남북고위급회담 쌍방대표단성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 대단결을 실현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신 주석이시다.

김일성주석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그분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영도의 결단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주석의 민족대단결강령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표준으로 삼은 것이였다. 주석의 변함없는 대단합경륜이 있어 남에서 몰아치는 분열의 광풍은 맥을 추지 못하였다. 7천만 민족은 ≪조국은 하나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단결의 경륜을 따라 꿋꿋이 걸어왔다.

김일성주석은 온 민족을 자애의 한품에 안아 단결시키신 광폭의 정치가이시다. 주석의 사랑은 천만자식을 돌보는 친어버이의 사랑이다.

주석의 정치는 남북을 가리지 않는 광폭의 정치이다. 애국, 애족, 애민으로 일관된 주석의 광폭정치는 겨레를 하나로 결집시키게 하는 초석이였고 추진력이였다. 주석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품에 안아주셨다. 애국, 애족의 양심만 있다면 과거를 불문하고 재생의 길, 애국의 길, 통일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셨다. 태양은 차별없는 밝은 빛과 뜨거운 열을 준다. 대해는 크고 작은 모든 광줄기를 빨아들여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김일성주석은 태양같은 경륜과 대해같은 도량으로 민족구성원 모두를 다 안아주고 보살펴주셨다. 그래서 완고한 우익정객으로 반공일선에 섰던 김구씨도 연공합작으로 인생전환을 했고 김규식, 조소앙, 엄항섭, 최동우씨도 인생의 새출발로 애국의 삶을 찾았다. 그뿐인가. 남에 살 건, 북에 살 건, 해외에 살 건 사상과 정견, 당파와 신앙의 차이를 불문해 주석의 품에 안겨 통일애국의 길에서 영생하는 사람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래서 7천만 겨레는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우러렀고 대단합의 위대한 구성으로 받들었다.

대하는 흐린 물이건 맑은 물이건 어느 하나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넓은 품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푸시는 정치는 배달의 피를 이어받고 애국심의 한쪼각이라도 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대망의 넓은 품의 정치이라고 한 최덕신씨의 토로를 어찌 그만의 격정이라고 하겠는가.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은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고귀한 성업으로 이루어졌다. 주석을 모셔 우리 민족은 단합의 가장 빛나는 장을 펼치고 그 승리의 장을 아로새겼다. 정말 **김일성**주석은 우리 민족대단결의 시초를 여시고 초석을 다지셨으며 그 창창한 앞날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시조이시다.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공적은 민족의 만년재보로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2

구심이 있어 단합도 영원하다. 오늘날 우리 민족대단합의 구심은 천출위인 **김정일**장군이시다. 장군을 모시어 7천만 겨레는 대단결의 영원한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김일성**주석의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을 그대로 이어가고 계신다. 주석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숭고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팀없이 승계해가시는 장군이시다.

주석의 서거후 장군께서 발표하신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주석의 대단결경륜을 그대로 이어가시려는 그분의 숭고한 뜻의 결정체였다. 그 숭고한 뜻이 있어 주석께서 남기신 유언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3대헌장, 3대기둥으로 정립됐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평양의 통일거리에 높이 솟아났다.

위대한 애국자만이 위대한 경륜을 제시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겨레사랑의 화신이신 **김정일**장군께서만이 민족을 구원하고 단합시킬수 있는 대강을 천명하실수 있다. 하나의 생명유기체가 두 토막 나듯이 조국이 양단되어 있는데도 아픔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국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보시는 장군이시다.

장군께서는 자신의 대에 통일을 이루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고 계신다. ≪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김정일**이 아니다≫, 이것이 그분의 투철한 통일관이며 투쟁관이다. 장군께서는 그 통일을 위해 온 민족을 단합시키실 크나큰 의지를 펼치시고 그를 진두에서 실천해가고 계신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이 하나되는 길을 열어주신 **김정일**장군의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구성으로 우러르고 있는 것은 그래서이다. 숭고한 실천으로 민족대단결실현의 경륜을 펴시는 장군의 위인상이 그분에 대한 민족의 숭앙심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7천만 겨레에게 숭고한 사랑을 베푸시며 뛰어난 정치지도력으로 온 민족을 결속시키신다.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고 간직한 사람은 다 한품에 안으신다. 민족적 양심을 지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손잡아 주시며 관용을 베푸신다. 한때 길을 잘못 들었던 사람도 과거를 뉘우치고 민족을 위한 길에 나서면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단결하도록 하시는 장군이시다.

과거를 백지화하고 민족을 위해 함께 손잡고 가자고 하시는 **김정일**장군의 민족대단결경륜은 가식이 아니다. 이남에서 경제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주영씨의 방북길을 열어주시고 몸소 숙소에까지 찾아가신 장군의 겸허하심과 밝은 예의, 정주영씨가 세상을 떠났을때 그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에 기여했다고 하시면서 친히 조전과 화환까지 보내주신 뜨거운 동포애는 우리 이남민을 얼마나 감동케 했던가. 지난해 6월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어 상봉의 의미를 최절정으로 이끌어내신 장군의 높으신 인품과 후더운 인정미는 지경을 넘어 만민을 매혹시켰다.

그분께서는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난날의 잘못도, 어제의 시련도 문제삼지 않고 너그러이 손잡으신다. 지난날 반북대결선전에 앞장섰던 언론사사장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방북초청하셨고 이남의 정치인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세계적인 명산 칠보산의 첫물 송이버섯까지 선물로 보내주시는 **김정일**장군이시다. 그래서 홍콩의 한 시사주간지도 세계를 향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미소가 민심을 끌어잡았다고 썼던 것이다.

김정일장군께서 펼치시는 민족대단결의 경륜은 이남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바탕하고 있다. 장군께서는 떨어져 있는 자식일수록 더 생각하고 고생할수록 더 위해주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남민을 두고 마음쓰신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기쁜 일이 생겨도 이남민부터 떠올리신다는 장군이시다. 장군의 가장 큰 괴로움도 이남민이 겪는 고통과 관련된 것이고 그분의 깊은 밤 주무심도, 명절날의 휴식도 미루시는 것도 바로 그때문이라고 하니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인가.

김정일장군의 사랑은 휴전선의 철조망도 녹이고 콘크리트장벽도 허물며 이남땅 골고루 비춰들고 있다. 이남민을 사랑하시는 장군의 마음은 끝이 없으셔 이땅에 수해가 났을때에는 수많은 옥백미와 의약품, 천과 시멘트를 보내주셨던 것이다. 이남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북에 간 이남출신의 자식들을 그들의 부모가 되시어 시집장가까지 보내주신 장군, 이땅의 통일애국인사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유족들에게 위문편지도 보내주시고 그들을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신다.

7천만 겨레 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장군의 사랑에는 그늘이 없다. 그래서 우리 민중 모두의 마음은 하나같이 **김정일**장군께로 쏠린다. 겨레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수 있는 품은 오직 **김정일**장군의 품밖에 없다.

평양 교외의 신미리라는 곳에는 애국열사릉이 있다. 이곳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8.15전에 민족주의적 독립군 거두들, 광복후 월북한 우익정객들, 한때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들, 각이한 계층의 인사들이 다같이 애국열사로 평온히 잠들고 있는 사실에 누구나 놀라게 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김모씨가 ≪민족21≫ 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신미리묘역은 **김정일**장군의 광폭정치, 대단합경륜의 참뜻을 전하는 생생한 화폭이라 할수 있다. 신미리묘역에서 장군의 품에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민족의 큰집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은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한없는 도량과 광폭의 정으로 **김정일**장군께서 온 겨레를 품어주시기에 7천만 겨레는 통일애국의 길, 민족대단결의 장에 한 사람같이 합류하고 있다.

범민련과 범청학련 등 통일애국단체들이 연이어 결성되고 그의 지도아래 남과 북, 해외가 함께 하는 3자연대의 통일행사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장군의 대단결사상의 승리이다.

새 세기의 첫해인 올해의 평양과 금강산에서 연이어 울려퍼진 통일의 함성, 대단결의 노래는 명실공히 **김정일**장군의 대단결사상이 낳은 통일의 대합창이였다. 남북의 수백개 단체 각계 인사들이 마음의 벽을 터치고 한자리에 모여 통일을 논하고 통일조국을 노래한 그 축제들은 **김정일**장군을 구심으로 민족의 단합을 이룰 의지를 재확인한 역사의 장이였다. 그래서 통일문제 전문가 강모씨도 북에 의해 주도된 통일축제의 한마당은 미구에 거행될 통일경축식 그 전야제였다고 토로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김정일**장군을 민족대단합의 중심에 모시고 있어 희망찬 새날이 다가오고 있다. **김일성**주석을 따라 그 단합의 역사를 개척해온 우리 민족은 **김정일**장군을 받들어 민족단합의 새 세기를 열어가고 있다. 민족대단결의 장엄한 역사가 시작된 20세기도 긍지로웠지만 민족의 대단합으로 강성부흥할 21세기는 더욱더 영광넘치리라.

겨레여 세기의 위인,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의 주위에 하나로 뭉쳐 통일조국을 창조하자!

김정일장군의 품에서 세세년년 복락을 누려가자!

네, ≪민족의 대단결 그 어제와 오늘≫ 민족사연구회 손학모씨의 글 김혜정씨와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셔 우리 민족은 21세기에 통일강성대국의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세계만방에 위용을 떨치게 될겁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성업에 몸과 마음 다바쳐 나서야 하겠죠.

민주화는 이남민중의 긴절한 투쟁과제

김창길 / 한민전 평양대표부 시사레포트 제11호, 주체90(2001)년 11월

21세기 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년 여 시일이 지났다.

이 기간은 우리 겨레가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수십년 얼어붙은 대결과 불신의 얼음장을 녹이고 화해와 단합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뜻깊은 나날이였다.

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겨레의 진군은 이제 더는 막을 수 없는 대세로 되였다.

이는 분단 50여년이 지나도록 실현하지 못했던 조국통일의 과제들을 이루어낸 것으로서 민족사에 특기할 일대 사변이다.

그러나 겨레의 통일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오늘날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서 절실히 요망되는 것은 이남사회의 민주화이다.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하여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선언의 조항들을 이행하는데서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애국애족적인 활동을 한 청년학생들과 노동자, 농민, 각계 민중이 수시로 연행구속되고 수배에 쫓기고 있는 것이 이남현실이다.

심지어 ≪축전파동≫과 ≪만경대방명록파문≫이 보여주듯이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널리 장려되고 높이 평가되어야 할 애국적 소행까지도 범죄시되고 탄압당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민주 없이 6.15공동선언 이행 없다는 것은 지난 1년 여의 나날 우리가 찾은 또 하나의 교훈이다.

현시기 사회의 민주화가 이남민중의 긴절한 투쟁과제로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핵심과제는 ≪보안법≫을 철폐시키는 것이다.

≪보안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근원적으로 유린말살하는 파쇼악법의 극치이다.

피로 얼룩진 50여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보안법≫은 식민지독재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이 땅의 애국민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파쇼독재의 기둥이며 민주와 인권유린의 상징이다.

최근 거듭되고 있는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과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했다는 죄아닌 ≪죄≫로 민주노총위원장을 재구속한 노동운동에 대한 폭거가 보여주듯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무참히 짓밟는 ≪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적 악법들의 잔악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현실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민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인권이 언제가도 보장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보안법≫은 또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으면서 남북대결과 민족분열을 추구하는 천하에 둘도 없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다.

이 법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동족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잡다한 죄목과 가혹한 벌칙조항을 설정하여 사소한 연공연북활동도 극형과 중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평양상봉이후 일반시민으로부터 법률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절대다수가 ≪보안법≫폐지를 요구한 사실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실제로 지금 ≪보안법≫은 수구반통일세력의 존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6.15공동선언 이행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이남의 통일애국세력에게 반격을 가하게 하고 있다.

≪보안법≫은 그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정체로 하여 국제사회에서도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면위원회가 수차에 걸쳐 ≪보안법≫ 폐지를 공식촉구했고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기자연맹총회에서도 그 철폐를 주장했으며 최근 미국의 서부유력지인 ≪로스앤젤레스타임스≫까지도 만경대방명록에 글을 남긴 동국대 강정구교수 구속사건을 비난하면서 ≪보안법≫은 ≪국가안보을 해치는 행동과 일반적 견해를 표현하는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융통성 없는 법,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낙인찍었다.

이남의 각계 민중은 새로운 단계의 민주화투쟁요구에 걸맞게 악법중의 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보안법≫철폐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을 6.15공동선언이행의 핵심사안으로 부각시켜 전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법철폐를 위한 국민연대≫와 같은 ≪보안≫반대투쟁을 위한 연대기구들을 확대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한편 각계 운동단체들도 ≪보안법≫철폐투쟁의 불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안법≫은 반드시 부분개정이 아니라 전면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법≫은 몇몇 독소조항이 문제가 아니다. 이 법은 그 전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민족자주통일을 부정하는 악법임으로 지체없이 단호히 불살라 버려야 한다.

모든 운동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보안법≫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의식화활동과 함께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모두다 민주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촉진함으로써 통일조국의 새날을 앞당겨 나가자.

한민전의 전위투사 이문규동지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6일~8일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해서 그 인생이 빛나는게 아니죠. 비록 짧게 살았어도 사람들이 잊지 못해하며 오래오래 추억하는 그런 사람의 생이야말로 가장 값있는 삶, 빛나는 삶이라고 할겁니다. 이땅에 자주민주통일을 안아오기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열사들의 삶이 바로 그런 빛나는 삶이라고 할겁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 이문규동지도 그런 사람들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이문규동지의 희생 32주기를 맞으며 그의 빛나는 삶을 돌이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기수씨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사에 영생의 이름으로 새겨진 한민전의 전위투사들, 세월의 비바람속에서도 바래우지 않고 우리 민중의 심장속 깊이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는 그들의 모습속에는 이문규동지도 있습니다.

올해 11월 6일은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 지도간부의 한사람이였던 이문규동지가 희생된지 3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는 한민전성원들과 우리 민중모두는 이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성전에 일생을 다바친 한민전의 전위투사 이문규동지의 생애를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문규동지는 서울 영등포구의 교육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교육자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신자였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책읽기를 무척 좋아했고 정의감이 강해서 대구 경북고교재학때에 벌써 학우들은 물론 선배들과 후배들속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시절에 그의 눈에 비친건 부익부빈익빈의 부조리한 사회현실이였습니다. 미군의 한국강점으로 인해 겪는 우리 민중의 불행과 고통을 직접 보고 체험한 그였지만 이문규동지는 이것을 가시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모대기었습니다.

이문규동지는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시절에 그 해답을 찾고저 진보적인 서적탐구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며 수많은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 민중이 나아갈 길을 찾을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관적인 방황속에서 헤매던 이문규동지가 참된 길을 찾게 된 것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접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문규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불후의 저작들과 주체사상원전들을 읽으면서 인간의 참의미와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게 됐고 진정한 애국자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 이문규동지는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동지들에게 장군님의 사상을 받들고 그 사상대로만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좌우명이오.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이 길에서 한치의 편차도 허용하지 말아야하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문규동지는 김종태, 최영도, 김질락 등 동지들과 함께 통일혁명당창당작업에 헌신분투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대전과 부산, 밀양과 대구 등 당창건을 위해 그가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통혁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이 고조됐을때 그는 당기관지 ≪혁명전선≫과 잡지 ≪청맥≫의 발간보급을 맡게 됐습니다. ≪청맥≫의 초대편집장으로써 그는 식민지한국사회의 모순을 파헤치며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에게 주체사상을 심어주는데 온갖 심혈을 다바쳤습니다. 그래서 ≪청맥≫지는 자주의식으로 참신하게 메꿨으며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쉼없이 뿜어주는 교양지로 광범위한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이문규동지는 한편으로 조직으로부터 받은 학사주점운영과제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학사주점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해설해주고 대중속에 주체사상신봉자대열을 늘려나가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이문규동지는 또한 통혁당기관지 ≪혁명전선≫을 편집발간하는데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원고의 검토정리와 **에 올리는 일, 그리고 등사와 **등 ≪혁명전선≫의 원고집필과 편집, 인쇄와 배포까지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 ≪주체사상과 나의 *≫, ≪자신을 알자≫ 등 그같은 원고들은 모두 민중에게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어주는 가치있는 것들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문규동지는 통일혁명당의 산하조직인 조국해방전선의 책임주제로도 활동하면서 통일전선을 이룩해가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그는 넓은 포용력과 뜨거운 인간미, 능숙한 조직적 수완으로 노동자, 농민, 인텔리, 청년학생 등 광범위한 각계각층 민중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시키고 투쟁대오에 결집시켜 나감으로써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실로 이문규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신 **이며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 참된 애국자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문규동지는 1969년 11월 6일 원수들에게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키며 ≪**김일성**장군님 만세!≫를 소리높이 외쳤던 것입니다.

지난 1992년 8월 15일 광복절 45돌을 맞으며 이북에서는 이문규동지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고 그의 무덤을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땅에는 이문규동지가 생전에 그토록 바라던 자주민주통일은 아직도 이룩되지 못했습니다.

한민전의 모든 전위들과 애국민중들은 민족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였던 이문규동지의 생전의 숭고한 뜻과 염원을 이땅에 실현하기 위한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87년 KAL기 사건 조작의혹 비디오 관람을 합니다

통일연대

1.통일연대는 ≪87년 KAL기 사건≫ 진상규명운동을 제기하기 위한 첫 출발로 KAL기 사건 조작의혹 과 관련한 비디오 관람을 하고자 합니다.

2. 이 KAL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은 현시기 통일운동을 풀어나가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북이 테러지원국으로 규정된바있고 여기에 대한 논박자료가 지금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3.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김현희이며 이 김현희가 북의 사주를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안기부가 제기한 증거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 통일연대는 이 사건을 대단히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비디오를 관람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KAL기 사건 진상규명운동의 출발을 삼으려고 합니다.

5. 일시 및 장소
일시: 2001년 11월 16일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우체국 6층 북한자료센터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와 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통일연대

1. 취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교류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에 대한 공동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야당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 개정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 목적
–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와 운용상의 문제점을 알아 본다.
–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상호관계를 재정립한다.
– 야당의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올바른 개정방향을 모색한다.
–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안을 통일연대, 변호사, 학계, 시 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주최 및 주관
– 주최 :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4.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1년 11월 21일(수) 오후 2시
– 장소 : 한국노총 대강당(8층)

5. 주제 및 발제자
1) 사회자 : 김성윤 목사 (기독시민사회연대 평화통일위원회)
2) 주제발표 ≪남북교류협력법체계의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 김인회 변호사
3)
토론주제 1. ≪남북교류협력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김성호 민주당의원
토론주제 3.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과의 상호관계≪ / 민 경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4) 토론자
/ 김창수 (민족화해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한국노총

보배손



나처럼 흙만지는 그 손
두엄이랑 주무르는 그 손을
글쎄 **김일성**주석님께서 잡아주셨단 말이죠

이슬젖은 논두렁길 헤치시며
찾아 오신것만도 황송하온데
투박한 그 손 꼭 잡으시고
글쎄 보배손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놀라워요, 놀라워!
주석과 농민은 하늘과 땅차이
어쩌면 그럴수가

하긴 주석님은 대대로 농사짓는 만경대농가에서 탄생하셨다죠
민중을 선생으로 하늘처럼 여기셨다죠
부지런한 실농군이셨고 현명한 농학박사셨다죠
생신날조차 온종일 파종한 들판에 나가계시고
심지어는 저택의 정원까지도 시험포전으로 꾸리셨다죠

아! 주석님
우리 농군들을 너무너무 잘아시는
김일성주석님
생전에 단 한번만이라도 만나뵈었더라면

여보세요, 이북의 농민대표
주석님 잡아주신 보배손
나도 좀 잡아봅시다

땅처럼 푸근한 그분의 체취
이제라도 느껴보게
낟알내음처럼 그윽한 그분의 민중사랑
그 향기에 젖어보게

그리고 우리 굳게 잡은 이 손으로
우리끼리 통일의 문 엽시다
아- 그러면 **김일성**주석님
농민의 보배손이 정말 큰일을 했다고 무척 기뻐하실테죠
주석님과 꼭같으신 **김정일**영수님
보배손이 이젠 통일손이 됐다고 무척 대견해 하실테죠

주체 90, 11월 4일

서울 시내 일부 서점들에서 **김정일**장군님 칭송서적들을 비밀리에 판매해 그분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한빛은행의 평화은행흡수가능성과 관련해 2일 성명을 내고 우리금융지주회사가 평화은행을 흡수합병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병방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산별연맹의 조직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등 4개 노동단체는 지난달 31일 비정규직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1인 계주시위를 연말까지 SK본사앞에서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정부가 쌀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른바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라는데서 종교재판관이라도 되는듯이 여러 나라들의 종교실태에 대해 시비하면서 이북의 종교문제까지 걸고 든 것과 관련해 종교인들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제공공서비스노조연맹이 1일 이 연맹의 아시아지역 총회 개막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보장과 공공부문의 직권중재철폐를 한국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공공노조는 또 철도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중단, 단병호민주노총위원장 등 구속된 노동자들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황해남도 토지정리 제2단계 전투에 떨쳐 나선 각도돌격대원들이 한달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나 되는 근 1만정보의 토지를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전모시켰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75주년에 즈음해 이북 도서 및 사진전과 영화상영주간이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페루 빌야 마리아 델 뜨리운포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본당국이 주체사상연구조직과 관련된 대상들을 강제수색하고 자료들을 압수해가는 폭거를 감행한 것을 규탄해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책임자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11월 5일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종교인 최모씨가 **김일성**주석님을 격찬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명동 향린교회 담벽에 나붙은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조국통일 이룩하자≫라는 현수막을 철수시키고 사건조사요 뭐요하면서 탄압의 칼을 뽑으려는 경찰당국의 횡포에 분격을 금치 못하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경대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성지이고 만경대정신은 그분께서 지니신 애국정신이다. 그분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광복의 의지를 지니시고 고향 만경대를 떠나 항일의 길에 오르셨고 장장 20성상의 간고한 혈전끝에 조국을 광복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만경대정신으로 북을 삼켜 보려던 미국의 거만한 콧대도 납작하게 만들고 6.25전쟁을 승리로 이끄셔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셨다.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반드시 애국정신인 만경대정신을 안고 투쟁해야 한다.≫

그는 만경대정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사대매국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지난 8.15때 북에 가서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만경대방명록에 남겼다고 해서 구속한 동국대 강정구교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케 한 법안통과를 반대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 5,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집회가 4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전국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3권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교총은 2일 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해 오는 13일 전국 초중등대학교원과 외부인사 등 17명으로 구성된 정치활동위원회가 공식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전교조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연합회도 교원의 정치활동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 등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한 교육계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금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대졸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치솟는 등 취업난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초등교원수급대책을 발표하자 전국교육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대협은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초등예비교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또다른 땜질식 교원수급방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교대협은 당국의 대책은 교대학점제를 학사편입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앞으로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5일부터 4일동안 야간비행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남북협상과 교류 등을 활성화하자고 하면서도 동족을 반대하는 갖가지 군사훈련을 연일 벌이고 있는 것은 실제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뿐입니다.

러시아 고려인통일연합회(러시아 고통련)가 지난 1일 2.16경축준비위원회를 모스크바에서 결성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희귀한 바다동물인 소매낙지를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은 최근 이남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노조들과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선풍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3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공안당국이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재구속하고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통일운동가들과 한총련 간부 등을 체포구속하는 탄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데

언급하고 이는 이남에서 날로 높아가고 있는 연북통일기운을 억누르고 민주주의적 권리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을 거세, 말살하려는 용납못할 반통일적 반민중적 범죄행위라며 이를 준열히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공안당국의 이같은 탄압소동은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비난하고 국가보안법철폐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공안당국이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며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은 세계 각국 직맹 및 노조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이 공안당국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폭로단죄하고 이남의 노동단체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평양과 남포, 평성, 사리원의 각계층의 민중들이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을 상봉했습니다.

10월 29일 유엔총회 제56차회의 2위원회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안건에 대한 토의시 이북 대표가 연설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탄저균이 미국의 재외공관들에 이어서 미국의 아프간 공격을 지원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탄저균공포가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서부에서 600여명의 주민들이 지난 8월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고이즈미총리를 재판부에 집단적으로 고소했습니다.

주체 90, 11월 6일

남북공동선언 광주전남실천연대는 당국이 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강제연행한 것과 관련해 2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총련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자주민보≫에 대한 당국의 탄압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쌀값안정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단체들의 벼쌓아놓기투쟁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협의회총연합은 4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전국의 공무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3권쟁취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각계에서 노동단체들과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당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최근 당국이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재구속하는 폭거를 감행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국이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구속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그가 남은 형기를 마치자마자 재구속한 것은 우리 노동자들과 국민을 기만우롱하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당국은 이른바 불법파업과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죄를 씌워 그를 구속했는데 이야말로 불법무도한 행위다. 노동자들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해 집회와 시위, 파업 등을 벌이는 것은 노동3권을 행사하는 합법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탄압하는 것은 노동3권을 짓밟는 불법행위가 아닐수 없다. 특히 단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을 악법에 걸어 감옥에 잡아 가두는 것은 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투쟁마저 못하게 하려는 악랄한 처사이다.

당국은 전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노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단위원장 등 구속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전국연합의 한 인사는 당국이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인사들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한데 대해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운동에 나선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이다. 특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선언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행위이다.

당국이 최근 미국에서 있은 테러사건을 구실로 전국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북을 반대하는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것을 보면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국의 부당한 처사때문에 장관급회담과 이산가족방문교환까지 연기되지 않았는가.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악법에 걸어 탄압할 것이 아니라 반통일악법인 보안법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악법에 걸어 구속한 통일운동가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회의가 진행중인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정리해고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주장하며 유인물 100여장을 뿌린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노동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최근 북의 종교문제를 시비해나선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약사를 나이지리아 신문 ≪오브저버≫ 10월 29일자가 게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에 대한 통보모임과 독서회가 지난 10월 4일 기니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와 페루 사회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여러 나라 신문이 글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이 일본 도쿄지방경찰청과 경시청이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연구소 사무국장의 집 그리고 일본의 주체사상 연구조직들을 비롯한 7개의 대상들을 강제수색하고 자료들을 압수해가는 폭거를 감행한데 대해 신랄히 비난했습니다.

지난 1일 뉴욕 시의회가 세계무역센터에 의한 테러로 입은 물질적 손실액이 67억달러에 달한다는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실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유엔인권고등상무관이 말했습니다.

수단 대외관계상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이 내린 수단에 제재조치연장 결정을 부당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체 90, 11월 7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4일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11월 6일 조선인민군 제264군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월간 잡지 ≪자주민보≫는 국정원이 잡지사 사무실들에 대한 압수수색소동을 벌이고 발행인, 기자 등 3명을 강제연행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소속 농민 50여명은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정부의 쌀수매정책에 항의해 기습적인 벼야적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전농은 오는 15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쌀생산비보장 쌀수입반대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이상 파업을 벌이고 있는 충북대병원노조가 병원정상화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 항의방문해 야스쿠니신사참배위헌소송관련 발언에 대한 고이즈미일본총리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한미간에 약속된 방위비분담과는 별개로 한미연합훈련에 매년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려대생 2명중 1명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에 대한 방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신 것과 관련해 이북주재 러시아대사의 초청으로 6일 저녁 대사관에서 인민보안성협주단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이남당국이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6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에서 최근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공포발효된 것과 관련해 6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지난 11월 2일 일본에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공포 발효된 것은 일본이 패망후 50여년간 꿈꾸어 오던 해외팽창의 야망을 실현하는 길에 끝끝내 뛰여 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담화는 일본의 노골적인 해외팽창과 군사대국화책동은 아시아와 세계 많은 나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세계사회계는 물론 일본내에서까지 엄중한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담화는 오늘 위험계선을 넘어 선 일본의 해외팽창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위업이며 모든 평화애호민중들의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이북의 종교문제에 대해 시비해 나선 것과 관련해 6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신문 ≪옵저버≫ 10월 24일자가 군인들속에 계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사진을 모시고 ≪이북의 선군정치 그 특징과 위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했습니다.

주체 90, 11월 8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난 7일 칠보산 유원지를 현지지도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과 함께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수상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셨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일본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통과는 군사대국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들어 223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어 275명이 구속된 지난 92년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가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범민련 유럽지역본부는 한국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구속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민통선내에 있는 사격장 주변 삶림을 대량으로 훼손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본부 대변인은 이남파쇼당국이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카톨릭교협회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이북의 종교문제에 대해 시비해 나선 것과 관련해 7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11월 9일

한민전 대변인은 지난 7일 담화를 발표해 날로 강화되는 일본의 해외침략야망을 규탄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은 수사당국이 10기 남총련의장 최종은씨를 국가보안법에 걸어 연행한 것과 관련해 6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건설운송, 한국통신계약직, 대우자동차노조 등 장기파업사업장들이 부당노동행위사업주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방자치개혁을 위해 각종 용역의 남발 및 남용, 투명하지 못한 판공비사용, 표창장 등 각종 포상남발 등 4대 관행청산을 선포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해마다 가을에 실시해 온 한미연합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을 올해에는 실시하지 않고 내년 3월에 실시하는 ≪연합전시증원연습≫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자관계자는 ≪연합전시증원연습≫과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을 연계해 실시하는 것은 보다 실전적인 연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양국이 ≪독수리훈련≫과 ≪연합전시증원연습≫을 연계시켜 동시에 실시하려는 것은 북침전쟁준비를 완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6.15공동선언실현을 저해하고 국민

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로써 내외의 규탄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김동신국방장관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에서 국방백서의 ≪주적≫개념변화여부와 관련해 국방부로써는 ≪주적≫개념에 변함이 없다고 떠들었습니다.
김동신의 이같은 발언은 동족을 적으로 여기면서 남북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을 부추기는 용납못할 망언이 아닐수 없습니다.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며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때에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주적론≫을 계속 펴고 있는 것은 민의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망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민족화해협의회대변인은 8일 담화를 발표해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범민련남측본부 대표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지난 5일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총회 제31차회의에서 이북대표단 단장인 김창식농업상이 연설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8일 몽골 평화친선단체연맹 드. 빌레그트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 친선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세계 진보적 인류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하에 이북민중이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데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지지월간에 즈음해 튀니지조선친선협회 무스따파 페르시부위원장이 10월 26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공격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16개 미국대학에서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지난 10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체 90, 11월 10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9일 조선인민군 제165군부대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9일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녹색연합과 참여연대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준비위원회는 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반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 10일 교수노조출범을 앞두고 교육부가 각 대학 총, 학장들에게 탄압공문을 보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밤 11시 40분 서울시 서초구 모 종자회사에 농민 19명이 들어가 5층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인 세계무역기구반대국민행동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앞에서 소속회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세계무역기구체제가 국민경제황폐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일방적인 무역자유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일교포신문인 ≪민족시보≫ 11월 1일자가 ≪시대에 역행하는 수구세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보수세력들이 최근 냉전시대의 회귀를 꿈꾸며 준동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한나라당의원들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친북세력이니 친북적인 이념이니 뭐니하는 망언들을 서슴지 않은데 대해 지적하고 이는 통일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자들이 6.15공동선언이행을 어떻게하나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내뱉은 험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한나라당의원들이 무슨 이념을 부르짖으며 사회분위기를 극단적인 대결에로 몰아가는 한편 이북을 자극해 모처럼 진척되어 오던 남북화해협력분위기를 파탄시키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6.15공동선언은 조국의 하나됨을 절실하게 바라는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면서 7천만 겨레는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반통일보수세력들이 마구잡이발언을 하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짓밟고 민족앞에 엄중한 죄악을 짓고 있다면서 민족통일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강반석제1고등중학교 학생들과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조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성원들이 9일 강반석제1고등중학교에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 김창원씨, 신인수씨, 한백렬씨들과 상봉했습니다.

10월 31일 유엔총회 제56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안건 49 ≪안보이사회에서의 동등한 대표권과 성원국증가에 관한 문제 및 그와 연관된 문제들≫에 대한 토의시 이북 대표가 연설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초상사진을 모시는 행사가 10월 31일 멕시코노동당 뿌에블라주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말리준비위원회가 10월 31일 바마코에서 결성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여사의 탄생 74돌에 즈음해 체코공산당에서 지난 2일 사진전과 영화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을 노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탈레반정권은 미국의 계속된 공습에도 불구하고 빈 라덴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백년이라고 미국과 싸울 것이라고 파키스탄 주재 아프간 대사가 경고했습니다